

모티브 세계문화전집 시리즈 03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



레프 톨스토이
『크로이체르 소나타』 전문

홍선기 평역
MOTIVE 출판사 제공

КРЕЙЦЕРОВА СОНАТА

(LEO TOLSTOY 1889)

일러두기

이 텍스트는 세계문화전집 03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모티브)에 수록하지 못한 『크로이체르 소나타』 전문입니다. 톨스토이의 『주인과 일꾼』, 『악마』와 르누아르의 도판, 두 거장의 평전, 두 사람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엮은이의 단편소설 『그래서 말인데』 등은 본편에 실려 있습니다.

모티브 세계문화전집 3권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백작 전집』(1904) 수록 삽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
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만일 아내에 대한 사람의 의무가 이와 같다면, 장가들
지 않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오직 허락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느니라.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렇게 태어
난 고자(거세한 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나니,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일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0, 11, 12절

이른 봄이었다. 우리는 이틀째 가고 있었다. 객차에는 대개 가까운 곳까지만 가는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나처럼 출발한 곳부터 줄곧 같이 가는 사람이 셋 있었다. 예쁘지도 젊지도 않은 부인 한 사람—담배를 피우고, 시달린 얼굴에, 반쯤 남자 외투 같은 옷에, 작은 모자를 쓴 부인. 그 부인 일행으로 잘 떠드는 마흔쯤 되는 사내—단정한 새 짐을 지닌 사내. 그리고 따로 떨어져 앉은 키 작은 신사 한 사람—몸짓이 거칠고, 늙지는 않았으나 곱슬머리가 분명 너무 일찍 썩고, 별나게 빛나는 눈이 이것저것을 빠르게 옮겨 다니는 신사였다. 그는 어느 고급 양복점에서 지은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외투에는 양털 것이 달려 있었고, 머리에는 높은 양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외투를 풀어 헤치면 그 밑으로 짧은 카프탄과 러시아풍 자수를 놓은 셔츠가 보였다. 이 신사의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면은, 헛기침 같기도, 끓긴 웃음 같기도 한 묘한 소리를 이따금 낸다는 점이었다.

이 신사는 여행 내내 다른 승객들과 어울리거나 통성명하는 일을 한사코 피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어도 짧고 무뎡뎡하게 대답했고, 그러고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거나, 낡은 자루에서 음식을 꺼내 차를 마시며 요기했다.

그가 혼자임에 지쳐 있는 듯이 보였고, 몇 번이나 그에게

말을 걸어 보려 했지만, 그와 내가 비스듬히 마주 앉아 있어 자주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책을 집어 들거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둘째 날 저녁 무렵 큰 역에서 정차한 사이에 이 신경질적인 신사는 뜨거운 물을 받으러 내려가 차를 우려 왔다. 단정한 새 짐을 가진 신사—나중해야 알게 되었지만, 그는 변호사였다—는 옆자리 부인, 그 반쯤 남자 외투를 입은 흡연하는 부인과 함께 역사 안으로 차를 마시러 갔다.

신사와 부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객차에는 새 승객 몇이 탔는데, 그중 키가 크고 면도를 한 주름투성이 노인 한 사람—분명 상인 행색의—이 있었다. 어민 포피 외투에 챙이 큰 천 모자를 쓴 노인이었다. 노인은 부인과 변호사 맞은편에 앉더니, 이 역에서 함께 올라탄 듯한 한 젊은이—가게 점원으로 보이는 청년—와 곧장 이야기를 트기 시작했다.

나는 비스듬히 앉아, 기차가 서 있는 동안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면 그들 이야기를 토막토막 들을 수 있었다. 노인은 우선 자기가 한 정거장 떨어진 자기 영지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그리고 나서는 늘 그렇듯 처음에는 시세 이야기, 장사 이야기, 모스크바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은 얘기를 이어가다가, 니즈니노브고로드 정기 시장¹ 이야기로 옮겨 갔다. 점원이 둘 다 아는 어느 부유한 상인이 그 정기 시장에서 어떻게 흥청거렸는지를 풀어놓기 시작했지만, 노인은 그가 끝맺지 못

하게 하고 자기가 옛적 쿠나비노²에서 흥청거렸던 일을 들려 주기 시작했다—자기도 끼어 있던 자리였다. 노인은 자기가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고,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다. 한번은 그 같은 친구와 둘이서 술에 취해 쿠나비노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데, 그건 귀엣말로나 옮길 만한 이야기였다고 하자, 점원이 객차가 떠나가게 웃었고, 노인도 누런 이 두 개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렇다 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가 떠나기 전 플랫폼을 좀 거닐려고 했다. 출입구에서 부인과 변호사를 마주쳤는데 두 사람은 걸으면서 무언가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못 다녀오실걸요.”

사람 좋은 변호사가 나에게 말했다.

“곧 두 번째 종이 울립니다.”

정말 그랬다. 객차 끝까지 채 다 가기도 전에 종이 울렸다.

돌아오니 부인과 변호사는 활기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늙은 상인은 그들 맞은편에 잠자코 앉아 엄한 눈으로 앞을 보고 있었고, 가끔 못마땅한 듯 이를 부르득거렸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장 자기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변호사가 미소 띤 채 말하고 있었다. 내가 그 곁을 지나가던 참이었다.

“자기는 그이와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는 그 뒤로 무언가를 더 이야기했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내 뒤로 다른 승객들이 지나갔고, 차장이 지나갔고, 짐꾼이 뛰어서 들어왔고, 한참 동안 소란이 일어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모두 잠잠해진 뒤 재차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야기가 이미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옮겨가 있었다.

변호사는, 이혼 문제가 요즘 유럽에서 여론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기 목소리만 들리는 것을 알아챈 변호사는 말을 멈추고 노인 쪽으로 돌아앉았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노인이 무어라 답하려 했지만, 그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노인은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며 속삭이듯 기도를 시

1 니즈니노브고로드 정기시장(Нижегородская ярмарка): 19세기 러시아 최대의 정기 시장. 매년 여름 볼가강가의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렸으며, 곡물·모피·차·면직 등 대규모 거래가 오갔다. 상인들의 사교와 유흥의 장이기도 했다.

2 쿠나비노(Кунавино): 니즈니노브고로드 정기 시장 옆 오카강 건너편 마을. 정기 시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매춘과 술자리가 성행한 유흥 구역으로 악명이 높았다.

작했다. 변호사는 점잖게 눈을 옆으로 돌리고 기다렸다. 노인이 기도를 끝내고 세 번 성호를 긋고는, 모자를 다시 똑바로 깊숙이 눌러쓰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말을 꺼냈다.

“전에도 있긴 있었습죠, 선생. 다만 적었지요.”

노인이 말했다.

“요즘 같아선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들 배우셨거든요.”

기차가 점점 빠르게 움직이며 연결부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어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나는 흥미가 일어 그들 가까이 자리를 옮겼다. 옆자리 신사—빛나는 눈을 가진 그 신경질적인 신사—도 분명 흥미가 생긴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배움이 뭐가 나쁘니까?”

부인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옛날처럼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 한번 못 본 채로 결혼하는 게 정말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부인은, 부인들이 보통 그러하듯 자기 말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가 할 것 같은 말에 대답하는 버릇대로 이야기를 이어 갔다.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아무에게나 시집을 가서 평생을 괴롭게 살았지요. 그게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부인은 정작 대화 상대인 노인 쪽보다는 나와 변호사 쪽을

향해 말했다.

“너무들 배우셨다고요.”

상인이 부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깔보는 눈으로 부인을 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배움과 부부의 불화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듣고 싶군요.” 변호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상인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부인이 가로막았다.

“아니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부인을 멈추게 했다.

“아닙니다, 영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전부 배움에서 나온 어리석음이지요.”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끼리 결혼시켜 놓고 사이가 안 좋다고 의아해하는 셈이지요.”

부인이 변호사와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등받이에 팔을 걸치고 웃으며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점원까지 돌아보며 서두르듯 말했다.

“짐승이야 주인 마음대로 짝지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제 마음, 제 정이 있는 거지요.”

부인은 분명 상인을 콧 찌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인.” 노인이 말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에겐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이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산답니까?”

부인은 자기 말이 매우 새롭게 들리리라 여기는 듯 계속 서두르며 말했다.

“전에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시다.”

노인이 위엄 있는 어조로 말했다.

“요즘 들어 생긴 일이지요. 무슨 일만 있으면 곧장, ‘당신한테서 나가겠어요’ 그럽디다. 농부들 사이에까지 이 유행이 번져서, 마누라가 ‘자, 당신 셔츠하고 바지 여기 있소, 나는 반카와 함께 갈 거요, 그이가 당신보다 더 곱슬머리잖소’ 한답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무엇보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점원이 변호사와 부인과 나를 차례로 보았다. 분명 웃음을 참으면서, 분위기에 따라 상인의 말을 비웃을 준비도, 맞장구 칠 준비도 되어 있는 듯이.

“두려움이라니요?” 부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지요.”

“흥, 영감님,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요.”

부인이 약간 화를 띠며 말했다.

“아닙니다, 부인. 그 시대는 지나지 않습니다. 이브가, 여자

가, 남편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노인이 그렇게 단호하고 승리감에 찬 듯 머리를 흔들었기에, 점원이 곧장 상인 쪽이 이겼다고 판단하고 큰소리로 웃었다.

“사내들이야 그렇게들 따지지요.” 부인이 굴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기들끼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여자는 규방에 가두려고만 들지요. 자기들은 별짓을 다 허용하면서요.”

“허락은 아무도 안 해 줍니다. 다만 집안에 사내한테서는 얻을 게 없고, 여자, 여인네란 무릇 약한 그릇이지요.”

상인이 계속해서 일러두듯 말했다.

상인의 위엄 있는 어조가 듣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압도했고, 부인도 어쩐지 짓눌리는 기분을 느꼈으나 여전히 굴하지 않았다.

“네, 하지만 영감님께서도 여자가 사내와 똑같이 사람이고 사내와 똑같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그러니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상인이 눈썹과 입술을 굳히며 위협조로 되풀이했다.

“사랑하게 되지요, 별 수 있나!” 이 뜻밖의 논거가 점원에게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지, 점원이 동의하는 소리를 냈다.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다. “사랑

이 없는데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럼 부인이 남편을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런 건 있어선 안 될 일이지요.” 노인이 말했다. “미리 단속을 잘해야지요.”

“그래도 일어난다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선 모를까, 우리 사이에선 없는 일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모두 잠시 말이 없었다. 점원이 몸을 움직이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그렇지요, 우리 친구 한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따지기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 친구한테 마침 그런 행실이 나쁜 여자가 걸렸답니다. 막 짓궂게 굴기 시작하더니만. 그 친구는 점잖고 머리도 갠 사람이었지요. 처음엔 사무원이랑. 친구가 좋은 말로 타일렀답니다. 안 듣더라요. 별별 더러운 짓을 다 하더라요. 그 친구 돈까지 훔치기 시작했지요. 친구가 그 여자를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어찌럽니까, 점점 더 나빠지더라요. 세례도 받지 않은—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유대인이랑 놀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친구가 어찌해야 했겠습니까? 결국 그 여자를 완전히 버렸지요. 그렇게 그 친구는 홀아비처럼 살고, 여자는 떠돌아다닌답니다.”

“그건 그자가 어리석은 거지요.” 노인이 말했다. “처음부터 풀어 주지 말고 단단히 죄어 두었더라면 그 여자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마음껏 굴게 두면 안 됩니다. 들에서는 말을 믿지 말고, 집에서는 아내를 믿지 말랬지요.”

그때 차장이 다음 역까지의 표를 확인하겠다고 객차에 들어왔다. 노인은 자기 표를 건넸다.

“그렇지요, 미리 단단히 잡아 두어야 합니다, 여자란.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 영감님, 방금 영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쿠나비노 정기 시장에서 흥청거린다고요.”

나는 참다못해 말했다.

“그건 또 다른 항목이지요.” 상인이 말하고는 침묵에 잠겼다.

기적이 울리자 노인이 일어나 의자 아래에서 자루를 꺼내고는, 외투를 여미고 모자를 살짝 들어 보이며 승강구로 나갔다.

II

노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여러 목소리로 이야기가 떠올랐다.

“옛 율법 시대 아버님이로군요.” 점원이 말했다.

“마치 살아 있는 ‘도모스트로이’³⁾네요.” 부인이 말했다. “여

자와 결혼에 대해 어찌면 저렇게 야만적인 생각을 가졌을까!”

“네, 우리는 결혼에 관한 유럽적 시각에서 한참 멀지요.”

변호사가 말했다.

“저런 사람들이 무엇보다 모르는 게 있어요.” 부인이 말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는 것, 오직 사랑만이 결혼을 신성하게 한다는 것, 진정한 결혼이란 오직 사랑이 신성하게 하는 그 결혼뿐이라는 거예요.”

점원은 듣고 웃으면서, 이 지적인 대화 가운데 쓸 만한 것을 가능한 한 많이 기억해 두려 했다.

부인이 말하는 도중에 내 뒤편에서, 꿇긴 웃음 같기도, 흐느낌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내 옆자리 사람, 빛나는 눈을 가진 그 외로운 백발 신사가 이야기에 분명 흥미를 느낀 듯 어느새 우리 쪽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좌석 등받이에 두 손을 얹고 서 있었고, 분명 매우 동요하고 있었다. 얼굴은 붉었고, 한쪽 뺨에서는 근육이 떨리고 있었다.

“어떤 사랑이……, 사랑이……, 그 사랑이 결혼을 신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3 도모스트로이(Домострой): 16세기 러시아의 가정생활 규범서. 가정의 절대적 권위 아래 아내·자식·하인을 다스리는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를 설파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제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대화 상대가 흥분한 상태임을 알아챈 부인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자세히 답하려 애썼다.

“진정한 사랑이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결혼도 가능한 거예요.” 부인이 말했다.

“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눈을 가진 신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머뭇거리듯 물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지요.”

부인은 그와의 대화를 끝내고 싶은 듯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신사가 말했다. “무엇을 가리켜 사랑이라 하는지 정의해 보여야지요…….”

“어떻게요? 아주 간단해요.” 말은 했지만,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다른 모든 이들보다 한 사람을,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단 하나로 골라 두는 거예요.” 부인이 마저 말했다.

“얼마 동안 골라 두는 사랑입니까? 한 달? 이틀? 삼십 분?”

백발 신사가 말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잠깐만요, 분명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호사가 부인을 가리키며 끼어들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선 애착, 사랑이라 부르고 싶다면 사랑

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사랑이 있을 경우만 결혼이 이를테면 신성한 무언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애착—사랑이라 부르고 싶다면 사랑이—그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은 결혼은 도덕적으로 사람을 묶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지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가 부인을 향해 물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여 자기 생각을 잘 풀어줬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 두 눈에 불이 붙어 어쩔 줄 모르는 신경질적인 신사가 변호사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고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사람을 단 하나로 골라 두는 그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얼마 동안 골라 두느냐고.”

“얼마 동안이라뇨? 오래요, 가끔은 평생이요.”

부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소설에서나 그렇지, 현실에서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골라 두는 게 길어야 몇 년이고—그것조차 매우 드문 일입니다—더 흔하게는 몇 달, 몇 주, 며칠, 몇 시간이지요.”

그는 자기 말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아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점원조차 못마땅한 소리를 냈다.

“네, 압니다.”

백발 신사가 우리를 누르듯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통념상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그저 아름다운 여자라면, 여러분이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을 누구에게나 느낍니다.”

“아휴,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라 불리는, 몇 달이나 몇 해 아니라 평생 주어지는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평생 고른다고 쳐도, 그 여자 쪽이 십중팔구 다른 사람을 고를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래 왔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더니 담뱃갑을 꺼내 담배를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받았다. “한 자루 완두콩 속에서 표시해 둔 알 두 개가 나란히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단지 있을 법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

기엔 분명 권태가 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는 건, 한 자루 양초가 평생 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줄곧 육체적 사랑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상에 토대를 둔, 영혼의 친밀에 토대를 둔 사랑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부인이 말했다.

“영혼의 친밀이라! 같은 이상이요!” 그가 자기 특유의 그 소리를 내며 되풀이했다. “그런 거라면 같이 잘 까닭이 없지요 (거친 말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이상이라는 까닭으로 같이 잡니다.”

그가 말하더니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잠깐만요.” 변호사가 말했다. “선생 말씀과 사실이 어긋납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있고, 모든 인류가, 또는 그 대부분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정직하게 오랜 결혼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백발 신사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들은 결혼이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시다가, 제가 육욕적 사랑 외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데 의심을 표하면, 결혼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사랑의 존재를 증명하려 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만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다만 결혼이 존재했고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존재합니까? 결혼은, 결혼에서 신비로운 어떤 것, 신 앞에서 사람을 묶는 성스럽고 거룩한 일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재했고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에서 교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결혼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것은 기만이거나 강제입니다. 기만일 때는 그나마 견디기 쉽지요. 남편과 아내가 일부일처로 살고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일부다처와 일처다부로 살아갑니다. 추하지만 그래도 굴러갑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경우처럼,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함께 살겠다는 외적 의무를 짊어진 채 두 달째에 벌써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고 싶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사람들이 술독에 빠지고, 충을 쏘고, 서로를 죽이거나 독을 마시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 됩니다.”

그는 점점 더 빨라지는 말로,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점점 더 격앙되어 말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어색함이 흘렀다.

“네, 부부 생활에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호사가 무례할 정도로 뜨거워진 이야기를 끊으려고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채셨군요?” 백발 신사가 조용히, 평정

을 가장하며 말했다.

“아니요, 그런 영광은 아닙니다.”

“영광이랄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포즈드니쇼프입니다. 선생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그 위기의 순간이 일어난 그 사람—아내를 죽인 바로 그자입니다.”

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빠르게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도 무어라 해야 할지 몰랐고, 모두 침묵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가 자기 특유의 그 소리를 내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아! 더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천만예요…….” 본인도 무엇이 ‘천만예요’인지 모르면서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나 포즈드니쇼프는 변호사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빠르게 돌아서서 자기 의자로 돌아갔다. 변호사와 부인이 무어라 속삭였다. 나는 포즈드니쇼프 곁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올리지 못한 채 잠자코 있었다. 책을 읽기에는 어두워서 나는 눈을 감고 자려는 척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역까지 말없이 갔다.

그 역에서 변호사와 부인은 다른 객차로 옮겨갔는데, 그 일은 미리 차장과 이야기해 둔 모양이었다. 점원은 의자에 자세를 잡고 잠들었다. 포즈드니쇼프는 계속 담배를 피우며 이전 역에서 우려 둔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자, 그가 갑자기 단호하면서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고 저와 같이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러시면 제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천만예요.”

“그럼 한 잔 드시겠습니까? 다만 좀 진합니다.” 그가 내게 차를 따라 주었다. “저들은 말합니다……, 그러고는 다 거짓을 늘어놓지요…….” 그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물었다.

“여전히 같은 이야기지요. 저들이 말하던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주무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전혀요, 안 잡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일어난 일에 이르렀는지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무겁지 않다면요.”

“아니요, 침묵하는 게 더 무겁습니다. 차를 드시지요. 너무 진하지는 않으십니까?”

차는 정말로 맥주 같았지만, 나는 한 잔을 다 마셨다. 그때 차장이 지나갔다. 그는 차장을 매서운 눈으로 말없이 따라가다가, 차장이 자리를 뜨자 비로소 이야기를 시작했다.

III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듣고 싶으신 게 맞습니까?”

내가 매우 듣고 싶다고 다시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고는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 해야 합니다. 어떻게, 왜 결혼했고, 결혼 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야지요.

결혼 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계층의 사람답게 말이지요. 저는 지주이고, 대학을 마쳤고, 군의 귀족장⁴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았고, 우리 계층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 방탕하게 살면서도 제가 마땅한 대로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스스로 저는 팬찮은 놈이라고, 저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는 유혹을 일삼는 자도 아니었고, 부자연스러운 취향도 없었고, 그것을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습시다—제 또래 가운데 많은 사람

⁴ 군의 귀족장(уездный предводитель дворянства): 1785년 예카테리나 2세의 〈귀족 칙령장〉 이래 도입된 자치 직위. 각 군의 귀족 사회에서 선출되어 귀족 명부 관리, 청년 입대 행정, 지방 자치 사무를 담당했으며 지방 유력자가 맡는 명예직이었다.

이 그렇게 했지요—저는 그저 점잖게, 분별 있게, 건강을 위해서 방탕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거나 정이 들어서 저를 묶을 만한 여자들을 피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도 있었고 정이 든 여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치 그런 것이 없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도덕적이라고만 여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했지요.”

그가 말을 멈추고, 자기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면 계속 그러했듯, 자기 특유의 그 소리를 냈다.

“바로 거기에 가장 큰 비열함이 있습니다.” 그가 외쳤다. “방탕이란 어떤 신체적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체적 추함도 방탕은 아닙니다. 방탕이란, 진짜 방탕이란 바로, 자기가 몸을 섞는 그 여자와의 도덕적 관계에서 자신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풀어 놓는 일을 제가 공으로 세우고 있었던 거지요. 한번은 어떤 여자에게 돈을 미처 치르지 못해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저를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제게 몸을 맡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나서야 안심했는데, 그 돈으로 제가 그 여자와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끈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었으니까요. 마치 동의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그가 갑자기 내게 소리쳤다.

“제가 이 수작을 잘 압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선생, 선생도, 좋은 경우여라도, 만약 선생이 보기 드문 예외가 아니라

면, 제가 그때 가졌던 바로 그 시각을 가지고 제실 겁니다. 뭐,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끔찍하디, 끔찍하고, 끔찍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끔찍한가요?” 내가 물었다.

“우리가 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빠져 사는 그 미혹의 심연 말입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평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저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난 뒤로 제 눈이 열려,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빛 아래에서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거꾸로다, 모든 게 거꾸로다……!”

그는 담배를 붙여 물고는 두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둠 속이라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객차의 덜컹거림 너머로 그의 묵직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만 들려왔다.

IV

“네, 제가 그토록 괴로워한 끝에야, 오직 그 덕에 저는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의 그 모든 끔찍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들어 보십시오, 저를 그 사건으로 이끌어 간 일이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지요. 그것은 제가 채 열여섯이 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김나지움 학생이었고, 형은 대학 1학년이던 때 일어난 일이었지요. 저는 아직 여자를 몰랐지만, 우리 계층의 가없는 아이들이 다 그러하듯 이미 순결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해째 다른 사내아이들에게 물 들어 있었으니까요. 이미 여자가—어느 특정 여자가 아니라, 달콤한 무언가로서의 여자가, 여자라는 것 일반이, 여자의 알몸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계층 사내아이들 100명 가운데 99명이 그렇듯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무서워했고, 괴로워했고, 기도했고, 그러고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미 상상에서도 실제로서도 타락해 있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아직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혼자 망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사람—대학생, 명랑한 친구, 이른바 ‘괜찮은 녀석’, 그러니까 우리에게 술과 카드놀이를 가르친 가장 큰 망나니—이 어느 술자리 끝에 우리에게 그곳에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우리는 갔습니다. 형도 아직 순결했는데, 바로 그 밤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다섯 살 무렵 사내아이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

고 또 한 여자를 더럽히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 채로 말입니다. 제가 한 그 일이 나쁜 짓이라는 말을, 저는 손위 어른 누구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런 말을 들을 데가 없지요. 물론 계명에 들어 있긴 합니다만, 계명이란 신부님께 시험 볼 때 답하기 위해서나 필요한 거고, 그조차 그리 필요치도 않습니다 — 조 건문에서 ‘ut’을 쓰는 ‘계명’에 비하면 어렵도 없지요.⁵

이렇듯, 제가 그 의견을 존중하던 손위 어른 중 누구한테서도 그것이 나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존경하던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말까지 들었지요. 이렇게 한 뒤에는 제 싸움과 고통이 가라앉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기도 했고 읽기도 했지요. 손위 어른들에게서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었고, 동무들에게서는 거기에 어떤 공로 같은 것이, 사내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병에 걸릴 위험요? 그것도 다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상하신 정부

5 ut 계명: 19세기 러시아 김나지움에서 라틴어는 핵심 과목이었고, 학생들은 ut 용법(목적·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활용)을 강박적으로 외워야 했다. 톨스토이는 계명(заповедь)이라는 단어를 십계명과 라틴어 문법 규칙에 똑같이 적용해, 종교 교육이 형식적 시험으로 전락하고 문법 암기가 그보다 더 절실한 계명이 된 시대를 야유한다.

가 이 일을 챙겨 주시거든요. 정부는 공창의 정상 운영을 감독하고, 김나지움 학생들을 위해 방탕을 보장해 줍니다. 의사들이 봉급을 받고 이 일을 감독합니다. 옹당 그래야 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방탕이 건강에 이롭다 단언하고, 그들이 직접 정상적이고 단정한 방탕을 차려 놓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건강을 챙겨 주는 어머니들도 압니다. 그리고 과학이 아들들을 공창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과학입니까?” 내가 말했다.

“의사가 됩니까? 과학의 사제들이지요. 누가 그것이 건강에 필요하다 단언하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킵니까? 그들입니다. 그러고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매독을 치료하지요.”

“매독을 치료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독 치료에 쏟는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방탕을 뿌리 뽑는 데 들었더라면, 매독은 진작에 흔적도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방탕을 뿌리 뽑는 데가 아니라, 방탕을 권장하는데, 방탕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문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계층뿐 아니라 농민들까지 포함해 적어도 100명 가운데 90명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입니다 — 제가 무너진 것은 어느 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끌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아닙니다, 어떤 여자도 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 다. 제가 무너진 것은, 저를 둘러싼 환경

이, 사실은 추락인 그것에 대해—어떤 이들은 가장 합당하고 건강에 이로운 일로, 또 어떤 이들은 젊은 사내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용서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순진하기까지 한 놀이로—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에 추락이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나이대에 따라붙는—그렇게 주입받았던—일부는 쾌락, 일부는 욕구인 그것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술과 담배를 시작하듯 그 방탕에 몸을 맡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도 그 첫 번째 추락에는 어쩐지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곧장 그 자리에서, 방을 채 나서기도 전에 슬픔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 닥쳐와서 울고 싶어졌습니다. 제 순결이 무너진 것을, 이성을 향한 마음이 영영 망가져 버린 것을 두고 울고 싶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을 향한 자연스럽고 단순한 관계가 영영 망가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성과의 깨끗한 관계는 제게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음란한 자’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자가 된다는 것은 모르핀 중독자, 술꾼, 골초의 상태와 닮은, 어떤 신체적 상태입니다. 모르핀 중독자, 술꾼, 골초가 더는 정상인이 아니듯, 자기 쾌락을 위해 몇몇 여자를 안 사람도 더는 정상인이 아니라 영영 망가진 사람, 음란한 자입니다. 술꾼과 모르핀 중독자를 얼굴과 몸짓으로 곧장 알아볼 수 있듯, 음란한 자도 그렇습니다. 음란한 자도 자제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이성을 향한 단순하고 명료하고 깨끗한 관계, 형제 같은 관계는 그에게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가 젊은 여자를 어떻게 한 번 쳐다보는지, 그 한 번의 눈길로 음란한 자를 곧장 알아볼 수 있지요. 저는 음란한 자가 되었고, 그 상태로 남았고, 바로 그것이 저를 망쳐 놓았습니다.”

V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점점 멀리, 더 멀리 갔지요. 온갖 일탈이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 방면에서 저지른 비열한 것들을 다 떠올리면 끔찍합니다! 이른바 순결하다고 친구들에게 비웃음당하던 저 자신을, 저는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니 황금빛 젊은이들, 장교들, 파리지앵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신사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른 살 먹은 방탕한 자들이—여자들을 향한 가지각색의 끔찍한 죄를 마음에 수백 가지나 짊어진 우리가—깨끗이 씻고, 면도하고, 향수를 뿌리고, 깨끗한 속옷에, 연미복이나 군복을 갖춰 입고 응접실이나 무도회장에 들어서지요—순결의 상징이라니—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어때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지를.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그런 신사가 제 누이나 딸 곁으

로 다가오면, 저는 그자의 사는 모습을 아는 자로서 그자에게 가서, 한쪽으로 데려가, 조용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살고, 누구와 어떻게 밤을 보내는 지 다 아네. 여기는 자네가 있을 장소가 아닐세. 여기는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들이 있는 곳일세. 나가게!’

마땅히 그래야 하건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신사가 와서 제 누이, 제 딸을 안고 춤을 추면, 그가 돈 많고 인맥 좋다면, 우리는 환호하지요. 리골보슈⁶ 다음에 어쩌면 제 딸에게도 영광을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고요. 그자에게 흔적이, 병이 남아 있어도 — 괜찮습니다. 요즘은 잘 고친답니다. 그렇고말고요, 저는 압니다, 상류 사교계의 처녀 몇 명이 부모 손에 신이 나서 매독 환자에게 시집간 일을 말입니다. 오! 비열한 짓! 이 비열함과 거짓이 폭로될 날이 오기를!”

그는 그 묘한 소리를 몇 번 내고는 차를 집어 들었다. 차는 무서울 정도로 진했고, 뭉게 할 물도 없었다. 내가 마신 두 잔이 유난히 나를 들뜨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 차가 그에게도 작용하는 듯했다, 그가 점점 더 흥분해 갔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노래하듯 흐르고, 표정이 점차 더욱 풍부해졌다. 그는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어, 모자를 벗었다 썼다 했고, 우리가 앉아 있던 그 반쯤 어두운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묘하게 자꾸 바뀌어 갔다.

“자, 그렇게 저는 서른 살까지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결혼해서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가정생활을 꾸리겠다는 뜻을 버린 적 없이, 그 목적을 위해 거기에 어울리는 처녀를 눈여겨보며 살았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방탕의 고름통 속에서 뒹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깨끗함이 저에게 어울릴 만한 처녀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어울릴 만큼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로 여럿을 퇴짜 놓았지요. 마침내 저에게 어울린다고 여긴 한 처녀를 찾았습니다. 한때 매우 부유했으나 가산을 탕진한 펜자⁷의 한 지주가 둔 두 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보트를 타러 갔다가 달빛 아래 밤이 되어 돌아오는 길이었습시다. 제가 그녀 곁에 앉아, 저지 천에 꼭 끼인 날씬한 몸매와 곱슬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

6 리 골보슈(Rigolboche): 본명 마르그리트 베달. 1860년대 파리의 캉캉 무회 이자 사교계 명사. 회상록『리골보슈 회고록』(1860)은 당시 큰 화제를 모았고,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유분방한 여성의 대명사로 통했다.

7 펜자(Пенза): 모스크바 동남쪽 약 600km에 있는 도시. 19세기에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부유한 지주 가문들이 모여 살았다.

간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 거지요. 그날 저녁 그녀는 저를 다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걸, 그리고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고결하다는 듯 말이지요. 사실은 다음과 같았을 뿐이었습니다. 저지 천이 유난히 어울렸다는 것, 곱슬머리도 그러했다는 것, 그리고 가까이서 하루를 보낸 뒤라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아름다움이 곧 선함이라는 환각은 얼마나 완벽한지요. 아름다운 여자가 어리석은 소리를 해도, 듣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영리한 무언가를 봅니다. 그녀가 추한 것을 말하고 추한 것을 해도 거기서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보지요. 그녀가 어리석은 말도, 추한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름답기만 하면, 그 즉시 그녀가 놀라우리만치 영리하고 도덕적이라고 확신해 버립니다.

저는 황홀해져 집으로 돌아가, 그녀가 도덕적 완성의 정점이며, 그래서 제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결심했고, 이튿날 청혼했습니다.

이 무슨 뒤죽박죽입니까! 결혼하는 천 명의 사내 가운데—우리 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불행히도 서민 계층에서조차—결혼하기 전에 이미 열 번, 아니 백 번, 천 번씩 돈 후안⁸처럼 ‘결혼’한 경력이 없는 사내가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듣고 보고 한 바로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위대한 일임을 느끼고 이는 깨끗한 젊은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하지만 제 시대에는 만 명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지요. 온갖 소설에서 주인공의 마음, 그가 거니는 호수와 덩불까지 시시콜콜 묘사하지만, 그가 어느 처녀에게 품는 위대한 사랑을 그리면서, 그 매력적인 주인공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공창을 드나든 일도, 하녀나 요리사 여자들이나 남의 아내들 이야기도 한 줄 없지요. 그런 점잖지 못한 소설이 있다고 해도, 누구보다 먼저 이걸 알아야 할 사람들—처녀들에게는 손에 쥐여 주지 않습니다. 처녀들 앞에서는 처음에 시치미를 떼지요. 우리 도시와 시골 생활의 반을 채우고 있는 그 음란한 행위가 아예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이 시치미에 익숙해져, 마침내는 마치 영국인들처럼 자기들 스스로마저도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우리 모두 도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처녀들은, 그 가없는 처녀들은 이것을 완전히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가없는 아내도 그렇게 믿었지요. 기억합니다, 이미 약혼자였을 때 제가 그녀에게 일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제

8 돈 후안(Don Juan): 17세기 스페인 전설에서 비롯된 유명한 호색한. 수많은 여자를 농락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1787)와 바이런의 시 《돈 후안》(1819-1824)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과거를, 아주 조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가졌던 가장 최근의 관계—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해 두어야겠다고 느꼈던 그 관계—를 알아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녀가 알아내고 깨달았을 때 그녀의 그 끔찍함, 절망, 어쩔 줄 모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녀가 그때 저를 버리려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녀가 저를 버리지 않았던가요!”

그는 자기 특유의 그 소리를 내고는 잠시 침묵하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VI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낫지요, 이게 나아요!”

그가 외쳤다.

“저로서는 마땅한 별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결국 그 가엾은 처녀들뿐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은 다 압니다. 특히 자기 남편 손에 길러진 어머니들은 아주 잘 알지요. 남자들의 깨끗함을 믿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어떤 미끼로 사내를 낚는지를 압니다.

우리, 사내들만 모르고—모르는 것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여자들은 아주 잘 압니다. 우리가 가장 고결하고 시적이라 부르는 그 사랑이, 도덕적 자질이 아니라 신체적 가까움에, 게다가 머리 모양과 색깔과 옷의 마름질에 달려 있다는 것ですよ. 어떤 사내를 사로잡겠다고 마음먹은 능숙한 노는 여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녀가 어느 쪽으로 위험을 무릅쓰겠느냐고요. 자기가 흘려 놓으려는 그 사내 앞에서 거짓말, 잔혹함, 심지어 방탕이 들끓는 쪽이나, 아니면 숨쉴 없이 지은 보기 흉한 옷차림으로 그 앞에 나서는 쪽이냐고요. 어느 노는 여자는 늘 앞엿것을 고를 겁니다. 그녀는 압니다, 우리 같은 사내는 고결한 감정 운운하며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는 것, 사내에게 필요한 건 오직 몸뿐이라는 것, 그래서 사내는 어떤 추한 짓이든 다 용서하지만 보기 흉하고 천한 옷차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ですよ. 노는 여자는 이를 의식해서 알지만, 순결한 처녀라 할지라도 누구나 짐승들이 그것을 알듯이 무의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추한 저지 옷이 있고, 엉덩이에 덧대는 받침이 있고, 드러난 어깨와 팔과 거의 드러난 가슴이 있는 겁니다. 여자들은, 특히 사내들이 가르치는 학교를 거친 여자들은 아주 잘 압니다. 고결한 주제의 대화는 대화일 뿐이고, 사내에게 필요한 건 몸이라고, 그 몸을 가장 끌리는 모습으로 내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게 제2의 천성이 되어 버린 이 추한 익숙함만 견어 내고, 우리 상류 계급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 부끄러움 모르는 모든 모습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공창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잠깐만요, 증명해 드리지요.”

그가 나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우리 사회의 여자들이 공창에 있는 여자들과는 다른 관심사로 살고 있다고 선생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증명해 드리지요. 사람들이 삶의 목적, 삶의 내적 내용에서 서로 다르다면, 그 다름은 반드시 외양에도 비치고, 외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없고 멸시받는 여자들과 가장 상류층 사교계 부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옷차림, 같은 유행, 같은 향수, 똑같이 드러낸 팔과 어깨와 가슴, 똑같이 내민 엉덩이를 꼭 끼게 한 옷, 작은 보석을 향한 같은 열정, 비싸고 반짝이는 물건을 향한 같은 열정, 같은 오락, 같은 춤과 음악과 노래. 저쪽이 온갖 수단으로 사내를 끌어들이듯, 이쪽도 그렇습니다.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요. 짧은 기간의 매춘부는 보통 멸시받고, 긴 기간의 매춘부는 존경받는다고요.”

VII

“네, 그래서 저는 그 저지 옷과 곱슬머리와 엉덩이 받침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를 사로잡기는 쉬웠지요. 저는 온실에서 자라는 오이처럼 사랑에 빠질 만한 젊은이가 길러지는 그런 조건에서 자랐으니까요. 완전한 신체적 빈둥거림 속에서 우리가 먹는 그 자극적이고 지나친 음식이란, 곧 욕정을 체계적으로 부추기는 일이나 다름 아닙니다. 놀라시든 말든, 그게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최근까지 이 일을 전혀 보지 못했지요. 이제는 봅니다. 그래서 더, 아무도 이를 모르면서 저 부인처럼 어리석은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올해 봄에 제 곁에서 농부들이 철로 독을 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민 사내의 평소 음식이라야 빵과 크바스와 양파지요. 그래도 그는 살아 있고, 기운차고, 건강하고, 가벼운 들일을 합니다. 그가 철도 일을 하러 가면, 먹을거리가 죽과 고기 1푼트⁹로 바뀝니다. 대신 그는 그 고기를 30푸드¹⁰짜리 손수레를 끄는 열여섯 시간 노동으로 풀어냅니다. 그에겐 딱 그렇게 들어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 2푼트씩 고기와 사냥감과

9 푼트(фунт): 러시아의 옛 무게 단위. 약 410그램.

10 푸드(пуд): 러시아의 옛 무게 단위. 약 16.4킬로그램. 1푸드 = 40푼트.

온갖 자극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어 치우는 우리는—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감각적 과잉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그 구원의 밸브¹¹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다 무사합니다. 그런데 그 밸브를 잠가 두면—제가 한동안 잠가 두었듯이—곧장 흥분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인공적인 삶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사랑으로, 어떤 때는 심지어 플라톤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누구나 사랑에 빠지듯 사랑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지요—황홀, 가슴 떨림, 시적인 정취. 사실 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머니 되시는 분과 양재사들이 만든 작품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빈둥거리는 삶 속에서 제가 먹어 치운 음식의 잉여물이었습니다. 만일 한편으로 보트 놀이가 없었고, 허리를 잡아 주는 옷을 짓는 양재사 같은 것도 없었고, 제 (미래의) 아내가 험령한 가운을 걸치고 집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일에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먹는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었더라면, 게다가 구원의 밸브가 열려 있었더라면—그런데 그게 마침 그 시기에 어쩌다 잠겨 있었지요—저

11 구원의 밸브(спасительный клапан): 작품 전체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비유. 잘 먹은 양반의 잉여 에너지가 욕정으로 빠져나가는 출구를 의미한다. 이 밸브가 한동안 잠겨 있던 시기에 사랑에 빠진 걸 ‘가장 깨끗한 사랑, 어떤 때는 플라톤적인 사랑’으로까지 나타낸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해설이다.

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거고, 이 모든 일도 없었을 겁니다.”

VIII

“그런데 마침 그렇게 들어맞았습니다. 제 상태도 그렇고, 옷차림도 좋고, 보트 놀이도 성공이었지요. 스무 번 실패하고 이번에 성공한 셈입니다. 일종의 덧 같은 것이지요.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날 결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덧처럼 마련됩니다. 자연스러운 게 됩니까? 처녀가 다 컸으니, 시집보내야지요. 처녀가 못생기지 않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내들이 있을 때, 이 얼마나 간단해 보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요. 처녀가 나이가 차면 부모가 혼사를 정해 줬습니다. 인류 전체가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중국인이든, 인도인이든, 무함마드교도든, 우리 민중에서든. 인류의 적어도 99퍼센트가 그렇게 하지요. 오직 1퍼센트 정도, 아니 그 미만의 우리, 음란한 행위에 빠진 자들만이 그게 좋지 않다고 여기고 새로운 것을 지어냈습니다. 그 새로운 게 됩니까? 새로운 것이란, 처녀들은 앉아 있고 사내들이 시장에 가듯 돌아다니며 고르는 겁니다. 처녀들은 기다리며 속으로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아버님, 저를요! 아니, 저요. 저 애가 아니라 저요. 보세요,

제 어깨가 어떤지, 그 밖에도요'라고요. 우리, 사내들은 거닐며 둘러보고 아주 만족스러워합니다. '나는 절대 안 걸린다'고 속으로 말이지요. 거닐고, 둘러보고, 이 모든 게 자기들을 위해 차려져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어느 순간, 방심한 사이에—첼컹! 걸려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말했다.

“그러면 여자가 청혼이라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동등하다면 동등해야지요. 중매가 굴욕적이라 했다면, 이쪽은 그보다 천 배는 더 그렇습니다. 저쪽에선 권리와 가능성이 평등합니다만, 여기선 여자가 시장에 나온 노예이거나 밭에 놓인 미끼입니다. 어느 어머니나 처녀에게 직접, 당신이 하는 일이라곤 신랑감 잡는 일뿐이라고 진실을 말해 보십시오. 매표사, 얼마나 모욕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하는 일이라곤 오직 그것뿐이고, 달리 할 일도 없습니다. 더 끔찍한 건—때로는 아주 어리고 가엾고 순결한 처녀들이 그 일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이 드러내 놓고 이루어진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 기만입니다.

‘어머, 종의 기원,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어머, 리자가 그림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전시회 가실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유익한지! 그리고 세 마리짜리 마차도, 연극도, 교향곡도요? 어머니, 정말 멋져라! 우리 리자는 음악에 푹 빠져 있답니다.

그쪽은 왜 이런 신념을 가지하지 않으세요? 보트는 또 어떻고요!…….’

본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를 잡으세요, 저를, 우리 리자를! 아니, 저를요! 한 번이라도 시험 삼아!…….’

오, 비열함! 거짓!”

그가 말을 맺고는, 마지막 차를 다 마시고 찻잔과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IX

“그러니까요.” 그가 차와 설탕을 자루에 채겨 넣으며 말을 시작했다. “세상이 시달리고 있는 그 여자들의 지배라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의 지배라뇨?” 내가 말했다. “권리, 권리상의 우위는 남자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보기 드문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한쪽으로는 여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굴욕으로 내몰려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으로는 여자가 지배한다는 것 말입니다. 유대

인들이 돈의 힘으로 자기들이 받은 억압을 갚는 것과 똑같이 여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가 오직 상인이기만을 원한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당신들을 손에 쥐겠소.’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 우리가 오직 감각의 대상이기만을 원한다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감각의 대상으로서 당신들을 종으로 삼겠소’라고 여자들은 말합니다.

여자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투표하거나 재판관이 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은 어떤 권리도 아닙니다—그게 아니라, 성적 관계에서 남자와 동등하지 못한 데, 자기 뜻대로 남자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없는데, 자기 뜻대로 남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추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그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해야지요. 지금은 남자가 가진 그 권리를 여자만 빼앗긴 셈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보상받기 위해 여자는 남자의 감각에 작용합니다. 감각을 통해 그를 굴복시키니, 형식적으로는 남자가 고르는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고르는 거지요. 한번 이 수단을 손에 쥔 여자는 그것을 함부로 쓰게 되고,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할 무서운 권력을 얻습니다.”

“그 특별한 권력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물었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나, 모든 것 속에 있지요. 어디 아무 곳의 큰 도시나 가게를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노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가게의 90퍼센트에 사내가 쓸 만한 물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삶의 모든 사치는 여자들이 요구하고 여자들이 떠받칩니다. 공장을 다 세어 보십시오. 그중 어마어마한 부분이 여자들을 위한 쓸모없는 장식, 마차, 가구, 패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 노예 세대들이 오직 여자들의 번덕 때문에 공장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갑니다. 여자들은 여왕처럼, 인류의 90퍼센트를 노예와 고된 노동에 묶어 둡니다. 다 여자들을 굴욕에 내몰고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우리의 감각에 작용함으로써, 우리를 자기 그물에 잡아넣음으로써 보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옵니다.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감각에 작용하는 도구로 만들어 놓아서, 사내가 여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내가 여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 여자가 내뿜는 마취에 빠지고 정신을 잃습니다. 예전에도 무도복 차림으로 잘 차려입은 부인을 보면 늘 불편하고 섬뜩했지만, 지금은 그냥 무섭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법에 어긋나는 무언가를 보고, 경찰을 부르고 싶어집니다. 위험에 맞서 보호를 청하고, 그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웃으시는군요!”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런데 이걸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이를 깨닫고 의아해할 시대가 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에게 허용된 그런, 노골적으로 감각을 자극하는 몸의 치장 같은—사회의 안녕을 깨뜨리는—행동을 용납하는 사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이걸 산책로와 오솔길 곳곳에 캉캉 무희들을 늘어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아니, 더 심합니다! 도박은 금지되어 있는데, 매춘부 같은, 감각을 자극하는 옷차림을 한 여자는 왜 금지되지 않은 겁니까? 이쪽이 천 배는 더 위험한데요!”

X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완성의 정점이라고 그려본 것만이 아니라, 약혼 시기 동안의 저 자신도 완성의 정점이라고 그렸습니다. 찾아만 보면, 어떤 면에서든 자기보다 더 못한 망나니를 찾지 못해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만족스러워할 거리를 찾지 못할 망나니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돈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사리사욕은

이 일에 끼지 않았지요—제가 아는 사람들 대다수가 돈이나 인맥 때문에 결혼한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부유했고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제가 자랑스러워한 또 하나는, 다른 자들은 결혼 전에 살던 그런 일부다처의 삶을 결혼 뒤에도 그대로 이어 갈 작정으로 결혼했지만, 저는 결혼 뒤에 일부 일처를 굳건히 지킬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저 자신에게 느낀 자랑스러움에는 끝이 없었지요. 네, 저는 끔찍한 돼지였으면서 자신을 천사로 상상했던 겁니다.

제가 약혼자로 지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움 없이는 그 약혼 시절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추했는지요! 사랑이라면 영혼의 사랑이지 감각의 사랑이 아니라고 들 전제하지요. 그래요, 영혼의 사랑이고 영혼의 교제라면, 그 영혼의 교제는 말과 대화와 이야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단둘이 남게 되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쩌나 끔찍하게 어려웠는지요. 마치 시지프스의 노동¹² 같았습니다. 겨우 무슨 말을 할지 짜내어, 한마디

12 시지프스의 노동: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Σίσυφος)가 신들에게 벌을 받아 산 위로 바위를 끝없이 굴러 올렸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일을 영원히 반복한 데서 온 비유. 끝나지 않는 헛수고를 가리킨다.

하고 나면, 또 침묵하고 또 짜내야 했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 살림,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 버렸으니, 그다음은 뭘니까? 짐승이었다면 우리에게겐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여긴 반대로, 말은 해야 하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말로 풀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사탕 같은 그 추악한 풍습, 단것을 거칠게 폭식하는 풍습, 그리고 결혼식을 위한 그 모든 비열한 준비들도 있었지요—짐, 침실, 침대, 가운, 잠옷, 속옷, 화장대 같은 것들이 주제가 된 수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도모스트로이’에 따라 결혼한다면, 깃털 이부자리, 혼수, 침대, 그 모든 게 다 성사에 따라붙는 자질구레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네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열 명 중에 성사를 믿기는커녕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무를 짊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채 안 됩니다. 백 명의 사내 중에 결혼 전에 이미 ‘결혼’ 경력이 없는 자가 거의 한 명도 없고, 천 명 중에 기회만 되면 아내를 배신할 작정을 미리부터 하지 않은 자도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교회로 가는 일을 그저 어느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로만 봅니다. 이런 마당에 그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모든 일이 그것 하나뿐이라는 게 되지요, 거의 일종의 매매가 되는 셈입니다. 음란한 자에게 순결한 처녀를

팔고, 그 매매에 일정한 격식만 갖춰 주는 격이지요.”

XI

“다들 그렇게 결혼하니, 저도 그렇게 결혼했고, 그 칭송받는 신혼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하나만 들어도 어찌나 비열한지요!”

그가 분기를 띠고 쉬쉬하며 말했다.

“한번은 파리에서 온갖 구경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간판을 보고 수염 난 여자와 물개를 보겠다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다 합쳐서, 데콜테로 가슴을 드러내고 여자 옷을 입은 사내와 바다코끼리 가죽을 씌워 물탱크에 띄워 놓은 개에 불과했지요. 아주 별 볼 일이 없었는데, 나가는 길에 흥행주¹³가 정중하게 저를 배웅하며 입구의 사람들을 향해 저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저 양반에게 물어보세요, 볼 만한지! 들어오세요, 들어오

13 흥행주(антрепренёр·안트레프레너): 옛날 연극이나 공연 등에서 자본을 대고 극단을 조직하여 공연을 올리던 ‘공연 제작자(프로듀서)’ 또는 ‘공연 기획자’

세요, 한 사람에 일 프랑입니다!’

볼 만하지 않다고 말하기가 민망해서, 저는 잠자코 있었고, 그 흥행주는 아마도 그것을 계산에 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혼여행의 그 모든 비열함을 다 겪고도 다른 사람들의 환상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누구의 환상도 깨뜨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 까닭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일에 관한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거북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가엾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루합니다, 견딜 수 없도록 지루하지요! 이걸 제가 담배 피우는 일에 익숙해질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토할 것 같고 침이 흐르는데도, 침을 삼키며 아주 즐거운 척했던 그 일 말입니다. 담배의 쾌락도, 이쪽의 쾌락도,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옅어집니다.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면 부부가 자기들 안에 그 악덕을 길러 두어야 하는 거지요.”

“악덕이라뇨?” 내가 말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다고요?” 그가 말했다. “자연스럽다고요? 아니요, 정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네,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타락하지 않은 처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보다 두 배 나이가 많은 음란한 사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기억합니다. 누이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그한테서 도망쳐 와,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사내가 자기한테 원하는 것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고요.

자연스럽다고 하시는군요! 먹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처음부터 즐겁고 가볍고 유쾌하고 부끄럽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추하고 부끄럽고 아픕니다. 아닙니다, 이걸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가지지 않은 처녀는 늘 이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다. “어떻게 인류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인류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뜻이!”

그가 익숙하며 정직하지 못한 그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여움이 깃든 비꼼으로 말했다.

“영국 귀족들이 늘 폭식할 수 있게 하려고 출산 자제를 설교한다면, 그건 뉘니다. 쾌락이 더 늘어나게 하려고 출산 자제를 설교한다면, 그것도 뉘니다. 그런데 도덕을 위해 출산을 자제하자고 말만 꺼냈다 하면 — 맵소사, 그 야단법석이라니. 사람 열 명, 스무 명이 돼지 노릇을 그만두려 한다고 해서 인류가 끊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불빛이 거북합니다, 가려도 되겠습니까?”

그가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상관없다고 말했고, 그러자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 황급히 좌석 위로 올라가 등에 양모 커튼을 쳤다.

“그래도.” 내가 말했다. “만약 모두가 그것을 자기에겐 올범으로 받아들인다면, 인류가 끊어질 텐데요.”

그는 곧장 답하지 않았다.

“인류가 어떻게 이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가 다시 내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그 위에 팔꿈치를 낮게 괴며 말했다.

“그게 왜 이어져야 하는 겁니까, 인류라는 것이?”

“왜라뇨? 안 그러면 우리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있어야 합니까?”

“왜라뇨? 그야 물론, 살기 위해서지요.”

“살아서 뭐 합니까? 아무 목적이 없다면, 삶이 그저 살아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살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나 하르트만이니 하는 사람들¹⁴, 그리고 모든 불교도가 전적으로 옳습니다. 삶에 목적이 있다면, 목적을

14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와 하르트만(Eduard von Hartmann, 1842-1906): 두 사람 모두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논하며 삶의 고통과 의지의 부정을 강조했고, 하르트만은 그를 이어『무의식의 철학』(1869)에서 인류의 종말을 통한 구원을 주장한 염세주의 사상가다.

이런 순간 삶도 끝나야 한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가 자기 생각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듯 눈에 띄게 들떠 말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목적이 행복이든, 선함이든, 사랑이든—뭐라 부르시든 좋습니다—인류의 목적이 예언에 적힌 그것, 즉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고 창을 두드려 낮을 만들고……, 운운하는 그것이라면, 그 목적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념입니다. 정념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끈질긴 것이 성적인 정념, 육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정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마지막 정념인 육체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예언은 성취되고, 사람들은 하나로 묶이고, 인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더 이상 살아야 할 까닭도 없어집니다. 인류가 살아 있는 한, 그 앞에는 이상이 놓여 있고—물론 가능한 한 많이 번식하는 토끼나 돼지의 이상도 아니고, 가능한 한 정교하게 성적 정념의 쾌락을 누리는 원숭이나 파리지앵의 이상도 아니라—자체와 깨끗함으로 다다른 선의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늘 거기로 향해 왔고, 지금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육체의 사랑이라는 게 곧 ‘구원의 밸브’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인류 세대가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정념이 있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성적 정념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정념이 있으니 다음 세대가 있고, 그러니 다음 세대에서도 목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세대도 이르지 못하면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이 어떤 목적에 다다르도록 사람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람을 둘 중 하나로 지으셨을 것이라고 쳐 봅시다—성적 정념 없는 죽는 존재, 또는 영원한 존재.

죽는 존재인데 성적 정념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사람들이 잠시 살다가, 목적에 다다르지 못한 채 죽을 것이고,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신이 새 사람을 거듭 지어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영원하다면—새 세대가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잘못을 고치며 완성에 다가가는 일은 더 어렵겠지만 어쨌든—몇천 년 뒤에 목적을 달성한다 칩시다, 그 뒤에는 그들이 왜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둘 겁니까?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낫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이 마음에 안 드시고……, 선생께서는 진화론자이십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가운데 최고의 종족인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의 다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번식할 게 아니라, 벌떼처럼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벌들처럼 성이 없는 존재들을 길러 내야지요. 다시 말해 자제를 향해 나아가야지, 우리 삶의 모든 구조가 향해 가는 그

욕정의 부채질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인류가 끊어지겠지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든, 누가 이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만큼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끝은 옵니다. 과학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면 같은 결론이, 피할 수 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도덕의 가르침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차를 더 마시고, 담배를 다 피우고, 자루에서 새 담배를 꺼내 자기 낡고 더러워진 담뱃갑에 채워 넣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비슷한 주장을 셰이커교도¹⁵가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그가 말했다. “성적 정념은, 어떻게 꾸며 놓든 간에, 악입니다, 무서운 악입니다. 그것은 우리네처럼 권장할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는 복음

¹⁵ 셰이커교도(Шейкеры, Shakers):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 종파. 정식 명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들의 통합 협회’. 절대적 금욕과 공동체 생활, 남녀 간 엄격한 성적 절제를 교리로 삼았다. 톨스토이는 만년에 셰이커교의 금욕 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그리고 무엇보다—자기 아내에게 해당합니다.”

XII

“그런데 우리네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미혼일 때는 그래도 자제하는 일을 생각해 보지만, 결혼하고 나면 누구나 이제는 자제가 필요 없다고 여기지요. 결혼 뒤에 떠나는 그 여행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신혼부부가 떠나는 그 칩거라는 것, 그게 다 방탕함을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그것을 어겼을 때 스스로 보복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어떻게든 꾸려 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내 추하고, 부끄럽고, 지루했지요. 그런데 곧 더 견딜 수 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일이 매우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였는지 나흘째였는지, 저는 아내가 우울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무엇 때문인지 묻기 시작했고, 그녀를 끌어안기 시작했지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녀가 바랄 만한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제 손을 밀어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는 말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무거웠던 거지요. 아마도 그녀의 지친 신경이 우리 관계의 그 추한 진실을 일러 주었을 텐데, 그녀는 그것을 말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캐

물었더니 그녀는 어머니가 그럽다고 무어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그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저 무거웠을 뿐이고 어머니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녀는 곧장 화를 냈습니다, 자기 말을 못 믿는다는 듯 제가 어머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이유로요.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변덕스럽다고 나무랐고, 그러자 갑자기 그녀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 대신 분노가 떠올랐고, 더할 수 없이 독한 말로 저를 이기적이라고, 잔인하다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완벽한 차가움과 적의를, 거의 저를 향한 증오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끔찍하다고 느꼈는지 기억합니다.

어떻게? 무엇이?

저는 생각했지요. 사랑은 영혼의 결합이라는데, 그 자리에 이런 게 있다니! 이럴 수가, 그녀가 아니야! 저는 그녀를 누그러뜨려 보려 했지만, 너무 단단한, 차갑고 독한 적의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분노가 저까지 사로잡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산더미만큼 쏟아냈습니다.

이 첫 부부싸움의 인상은 끔찍했지요. 저는 그것을 부부싸움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

이에 있던 그 심연이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마음은 감각의 충족으로 소진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실제 관계 안에서 서로 마주 보고 남았던 거지요. 다시 말해, 서로에게 완전히 낯선 두 이기주의자가, 어떻게든 상대를 통해 자기 쾌락을 최대한 얻으려는 모습으로요. 저는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부부싸움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부부싸움이 아니라, 감각이 멈추면서 드러난, 우리 서로를 향한 실제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차갑고 적의 어린 관계가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적의 어린 관계가 처음 한동안은 다시 우려낸 감각, 곧 사랑에 빠진 마음에 다시 덮여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다투고 화해했으며 이런 일은 다시는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신혼여행 동안에 곧 권태 시기가 도로 찾아와서, 우리는 재차 서로에게 필요 없어졌고,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다툼은 첫 번째 다툼보다 더 아프게 저를 때렸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다툼은 그 빌미가 더할 나위 없이 어이 없는 것이었기에 더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일어난 무슨 일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아내에게 돈을 아낀 적이 없었고 아낄 수도 없었지요. 다만 그녀가 어떻게 일을 비틀었는지, 저의 어떤 말 한마디가 돈으로 그녀를 지배하려는 욕망

의 표현으로 둔갑하고, 제가 마치 돈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쳤다는 것 정도만 기억합니다—말도 안 되고, 어리석고, 비열하고, 저에게도 그녀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무엇이었지요. 저는 화가 나서 그녀를 섬세하지 못하다고 나무랐고, 그녀도 저를 나무랐고—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얼굴, 눈빛에서 저는 다시금, 일전에 저를 그토록 놀라게 했던 그 잔혹하고 차가운 적의를 보았습니다. 형과도, 친구들과도, 아버지와도 다툼 적은 있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특별한, 독한 분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자 이 서로를 향한 증오는 또 사랑에 빠진 상태, 곧 감각 속으로 숨었고, 저는 이 두 다툼은 고칠 수 있는 실수였다는 생각으로 재차 위안 삼았지요. 그러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툼이 닥쳐왔고,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에 놓여 있는 사실이 끔찍하다 생각했지요. 그러면서 가혹한 생각이 또다시 저를 괴롭혔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이렇게 못나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내와 살고 있고, 다른 부부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이 보편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누구나 저처럼 이것이 자기들만의 예외적인 불행이라 여기고, 그 예외적이고 수치스러운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숨기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되어 줄곧 이어졌고,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모
질어졌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첫 몇 주부터 이미, 제
가 걸려들었구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구
나, 결혼이 행복이 아닐 뿐 아니라 매우 무거운 무엇이구나 하
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끝이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자
신에게 인정하지 않았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자신에
게도 숨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제가 제 실제 상태를 보지 못
했을까 의아합니다. 다툼이 끝난 뒤에 그 다툼이 무엇 때문이
었는지조차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비밀들에서 다툼이 시작되었
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그것은 볼 수 있었지요. 우리 사이
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적의에 맞는 충분한 비밀을 이성이 미
처 짜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해의 구실은 더더
욱 부족했지요. 어떤 때는 말이, 해명이, 심지어 눈물이 있었지
만, 어떤 때는……, 오! 지금 떠올리기에조차 추한 일입니다—서
로에게 가장 잔혹한 말을 퍼붓고 나서, 갑자기 말없이 눈길, 미
소, 입맞춤, 포옹……, 휴, 추악합니다! 어떻게 저는 그때 이 모
든 추함을 보지 못했을까요…….”

XIII

두 승객이 들어와서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
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잠자코 있었지만, 그들이 잠잠해지자
마자, 분명 한순간도 자기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뭐가 무엇보다 더럽냐 하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이론으로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이상적이고 고결한 무엇
이라 전제되지만, 실제에선 사랑이라는 게 뭔가 추한 것, 돼지
같은 것,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추하고 부끄러운 무엇이
라는 점이지요. 자연이 그것을 추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둔 데
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추하고 부끄럽다면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사람들이 추하고 부끄러운
것을 아름답고 고결한 것인 양 굽니다. 제 사랑의 첫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동물 같은 과잉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어떤 일인지 그 신체적 과잉의 가능성에
자랑스러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영적 삶에 대해서는
물론, 그녀의 신체적 삶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지요.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분노를 어디서 가져오는
지 의아해했지만, 사실 이는 아주 분명했습니다—그 분노는
자기를 짓누르는 동물성에 맞선 인간 본성의 항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이 미움은 다름 아닌, 같은 죄에 가담한 공범자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꼬드킨 죄도, 가담한 죄도 함께 짊어진 공범들끼리요. 어떻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가엾은 사람이, 첫 달에 곧바로 임신했는데도, 우리의 그 돼지 같은 결합은 그대로 이어졌으니까요.

—제가 이야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예요! 저는 지금 선생께, 제가 아내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모두 다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아내를 죽였느냐고. 어리석은 이들! 그들은 제가 그때, 10월 5일에 칼로 아내를 죽인 줄 압니다. 저는 그때 그녀를 죽인 게 아니라, 훨씬 전에 죽였습니다. 지금 그들 모두가 죽이는 그대로, 모두, 모두가 그렇게…….”

“그러면 무엇으로요?” 내가 물었다.

“바로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것을, 의사들이 마땅히 알고 설교해야 할 것을,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일은 끔찍할 만큼 간단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짐승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육체의 사랑 뒤에는 임신이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수유가 따릅니다. 여자에게도, 또 그 아이

에게도 육체의 사랑이 해로운 그런 시기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자와 남자의 수는 같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따라옵니까? 분명해 보이지요. 거기서 짐승들이 끌어내는 결론, 곧 자제를 끌어내는 데에는 큰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닙니다. 과학은 핏속을 뛰어다니는 무슨 백혈구 같은 것이며 온갖 쓸데없는 어리석은 것들은 찾아냈지만, 이걸 알아내지 못했지요. 적어도 이걸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길은 둘뿐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남자가 평화롭고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라는 능력, 즉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없애거나, 필요한 만큼 없애 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길이라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고 거칠고 명백한 자연법칙 위반인데, 이른바 점잖다는 모든 가정에서 행해지는 길이지요. 그 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여자가 자기 본성을 거슬러 동시에 임신부이고, 유모이고, 내연녀여야 한다는 것, 어떤 짐승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위치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모자랄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 계층에서는 히스테리니 신경증이니 하는 게 생기고, 민중 사이에서는 클리쿠샤¹⁶들이 생기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녀들에게는, 깨끗한 처녀들에게는 클리쿠샤가 없습니다. 오직 부인네들에게만 있고, 그것도 남편과 사는 부인네들에게만요. 우리네가 그렇고, 유럽도 똑같습니다. 히스테리 환자들의 모든 병원이

자연법칙을 어긴 여자로 가득합니다. 다만 클리쿠샤와 샤르코¹⁷의 환자들은 완전히 다친 사람들이고, 반은 다친 여자들은 온 세상에 가득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태 안에 자식을 가졌을 때, 또는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그 여자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를 잇고 우리를 대신할 그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이 깨지고 있다니—무엇 때문예요?—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고는 자유니, 여자의 권리니 떠들지요. 이걸 식인종이 잡아 온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살찌우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챙기고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두 해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데, 남자는…….”

16 클리쿠샤(кликуша): 19세기 러시아 농촌에서 흔히 보이던 발작성 광기의 여인. 교회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동물 울음 같은 소리를 지르거나 발작을 일으켰다. 의학적으로는 히스테리의 한 형태로 본다.

17 샤르코(Jean-Martin Charcot, 1825~1893): 19세기 프랑스 신경의학의 거장. 파리 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히스테리·간질 환자를 진료하며 근대 신경의학의 토대를 닦았다. 프로이트의 스승이기도 하다.

“남자에겐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가 말을 받았다.

“다시금 그 사랑스러운 과학의 사제들이 모두를 설득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마법사들에게, 자기들 생각으로 남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 여자들의 일을 한번 직접 해 보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어라고 말할까요? 사람에게 보드카, 담배, 아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입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게 꼭 필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해서서, 마법사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 만드신 셈이 되는 거지요. 보십시오, 셈이 안 맞습니다. 남자는 자기 욕정을 채우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욕구의 충족을 방해하는 출산과 수유가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법사들에게 가야지요, 그들이 해결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지어낸 겁니다. 아, 이 마법사들이 자기들 기만과 함께 언제쯤 왕관을 벗기게 될까요?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미쳐 가고 총을 쏘 자살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다 이것 때문이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들은 마치 후손이 자기 종을 잇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점에서 어떤 법칙을 지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를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요.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얻을까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자연의 왕, 인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짐승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에만 어울

립니다. 그런데 더러운 자연의 왕은—언제든지, 즐겁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이 원숭이 같은 짓을 창조의 진주, 사랑이라고까지 떠받들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즉 그 더러움의 이름으로—무엇을—망쳐 놓습니까? 인류의 절반을요. 인류가 진리와 선으로 나아가는 데에 돕는 이가 되어야 마땅한 모든 여자를, 인간은 자기 쾌락의 이름으로 돕는 이가 아니라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십시오,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어디서나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몇 번 되풀이하며, 분명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는 듯 몸을 움직이고,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XIV

“그렇게 저는 그 돼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가 다시 아까 같은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나쁜 점은, 이렇게 추한 삶을 살면서도 저는, 제가 다른 여자들에게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정직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저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만일 우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잘못

은 아내에게, 아내의 성격에 있다고 상상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잘못은 아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고, 대개의 여성과 같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요구하는 대로 길러졌고, 그래서 형편이 넉넉한 계층의 모든 여성이 다 그렇게 길러지듯, 또 그렇게 길러지지 않을 수 없듯이, 아내도 그렇게 길러진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여자 교육이라는 것을 떠듭니다. 다 빈말입니다. 여자를 향한 가식이 아닌, 진정한 보편 시각이 있는 한, 여자의 교육은 딱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교육은 늘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에 맞춰질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는 우리 모두 압니다.

‘포도주, 여자와 노래(Wein, Weiber und Gesang)¹⁸’, 시인들이 그렇게 시 안에서 말하지요. 모든 시, 모든 회화, 조각을 보십시오—사랑의 시구와 벗은 베누스와 프리네에서부터¹⁹—여자가 쾌락의 도구라는 걸 보게 됩니다. 트루바 거리에

¹⁸ 포도주, 여자, 노래 (Wein, Weiber und Gesang · 독일어): 마르틴 루터의 말로 흔히 전해지는 격언으로, 인생의 세 즐거움을 가리킨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같은 제목의 왈츠(1869)를 작곡하기도 했다.

¹⁹ 베누스(Venus)와 프리네(Φρύνη): 베누스(비너스)는 로마 신화의 사랑과 미의 여신(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 프리네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고급 매춘부로, 조각가 프락시텔레스의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화가 아펠레스의 《물에서 씻는 아프로디테》등 수많은 작품의 모델이 되었다.

서도²⁰, 그라초프카 거리에서도, 궁정 무도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보면 악마의 교활함을 보십시오. 쾌락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그러면 즐거움이라는 것, 여자가 달콤한 한 조각이라는 걸 알거나 하면 좋겠는데요. 아니지요, 처음에 기사들은 자기들이 여자를 신처럼 모신다고 우겼습니다(신처럼 모시지만, 여전히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봅니다). 이제는 여자를 존경한다고 우깁니다. 어떤 이들은 자리를 양보하고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 주고, 어떤 이들은 여자가 모든 직책을 맡고 통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인정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만, 여성을 향한 시각은 그대로입니다. 여자는 쾌락의 도구입니다. 그녀의 몸은 쾌락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그것을 압니다. 노예제와 똑같습니다. 노예제란 다름 아니라, 몇몇 사람이 많은 이들의 강제 노동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노예제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남의 강제 노동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죄나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예제의 외적 형태만 폐지하고, 노예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노예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노예제가 계속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

20 트루바 거리(Трубная улица)와 그라초프카 거리(Грачёвка): 19세기 모스크바의 매춘과 술집이 밀집한 환락가. 톨스토이 시대에 악명 높은 구역이었다.

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남의 노동을 통해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좋고, 정당하다, 여기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한, 늘 남보다 더 힘세거나 더 교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여자의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노예 상태는 다름 아닌, 사람들이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누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매우 좋게 여긴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을 해방하고, 남성과 평등한 온갖 권리를 주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보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기르고, 여론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전히 짓눌리고 망가진 노예이고, 남자는 여전히 망가진 노예주지요.

학교에서, 의회에서 여성을 해방하면서, 여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네처럼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도록 가르치면, 여자는 영원히 낮은 존재로 남을 겁니다. 아니면 비열한 의사들의 도움으로 태아의 잉태를 막을 것이고, 곧 완전한 매춘부가 될 것입니다—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되는 매춘부로요. 또는 대개 그렇듯, 영혼이 병든 사람, 히스테리에 시달리는 불행한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실제로 그러하듯이, 영적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요.

김나지움도 학교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여성을 향한 남성의 시각,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여성의 시각이 바뀌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은 오직, 여자가 처녀로 사는 일에 가장 높은 의미를 부여할 때입니다—지금처럼 인간의 가장 높은 상태를 부끄러움, 수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모든 처녀의 이상은—그 교육이 어떠한—여전히 가능한 한 많은 남자, 가능한 한 많은 수컷을 자기에게 끌어들어서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수학을 좀 더 알고, 어떤 처녀가 하프를 켤 줄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자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는 때는, 남자를 홀려 놓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가장 큰 과제는 남자를 홀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처녀 시절에 그랬고, 결혼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처녀 시절에는 선택하려고 그것이 필요하고, 결혼 뒤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멈추거나, 또는 한동안만이라도 누르는 단 한 가지가 자녀입니다. 그것도 여자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 곧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일 시기에 한해서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사들이 끼어듭니다.

제 아내는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이고 싶어 했고, 그다음 다섯 아이에게 직접 젖을 먹였습니다만, 첫째 아이 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들이, 아내를 거리낌 없이 벗기고 온몸을 만져 본—그러고는 제가 그 행위에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돈

을 치러야 했던—그 사랑스러운 의사들이, 아내가 젖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지요. 그래서 아내는 한동안, 자신을 교태에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을 빼앗긴 채 지냈습니다. 젖은 유모가 먹였습니다. 곧 우리는 한 여자의 가난과 궁핍과 무지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이에게서 우리 아이에게로 끌어 왔고, 그 대가로 갈룬을 두른 코코슈니크²¹를 아내에게 입혀 주었지요.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임신과 수유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그 시기에, 아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여성스러운 교태가 특별히 강한 힘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제 안에서도 질투의 고통이 유독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이 저를 찢어 놓았고, 저처럼 살아가는 모든 남편—다시 말해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모든 남자를 찢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지요.”

21 코코슈니크(кокошник): 러시아 농촌 여성의 전통 머리 장식. 부채꼴이나 반원형의 단단한 모자로, 천에 자수와 진주 등을 박아 화려하게 꾸몄다. 보통 결혼한 여자가 썼다. 갈룬(галун)은 금실·은실로 짠 장식 끈으로, 코코슈니크나 옷의 가장자리에 둘러 장식했다.

“저는 결혼생활 내내 한 번도 질투로 인한 고통을 멈추지 않고 겪었습니다. 다만 유달리 격렬하게 질투로 고통받았던 시기들이 있었지요. 그런 시기 중 하나가 첫째 아이 이후 의사들이 아내에게 수유하지 못하게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특별히 질투했습니다. 첫째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마땅한 그 불안—삶의 올바른 흐름이 까닭 없이 어그러질 때 일어나는 그 불안—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아내가 어머니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그렇게 쉽게 내려놓는 것을 보고서, 저는 정당하게는, 비록 의식하지는 못한 채로 결론지었던 겁니다—아내가 것처럼 쉽게 부부의 의무도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더구나 아내는 분명히 건강했고, 그 사랑스러운 의사들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이들에게는 직접 젖을 먹였고, 훌륭하게 키워 났으니까요.”

“그런데 선생께서는 의사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그가 의사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유난히 사나운 목소리를 띠는 것을 알아채고서 내가 말했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 삶을 망쳤습니다. 수천, 수십만 사람들의 삶을 망쳤고 망치고 있듯이요. 저는 결과를 원인과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변호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압

니다. 저는 기꺼이 그들에게 제 수입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기꺼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내놓을 겁니다—그들이 우리 가족생활에 끼어들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않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모은 것도 아닌데, 저는 수십 건의 사례를 압니다—그런 일은 끝이 없지요—그들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우기면서 자궁 속 아이를 죽이는데 산모는 나중에 멀쩡히 잘 낳고, 또 어떤 수술이라는 명목으로 어머니들을 죽이는 경우들 말입니다. 아무도 이 살인을 세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 재판의 살인을 세지 않았던 것처럼요. 인류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 전제되었으니까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목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도, 그들이 세상에—특히 여자들을 통해—들이는 그 물질주의의 도덕적 타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대로 따르다면, 어디에나, 모든 것들 속에 있다는 그 균들 때문에, 사람들은 결합이 아니라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더라도요.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모두가 따로 앉아 있어야 하고, 폐놀산 세척기를 입에서 떼지 말아야 합니다(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하지만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독은, 사람들을, 특히 여자들을 망가뜨리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는 잘못 살고 있다, 더 잘 살아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잘못 산다 한들, 그 원인은 신경 기능의 이상이라거나 그런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야 하고, 그들은 약국에서 35코페이카어치 약을 처방해 주고, 그것을 받아먹어야 합니다. 더 나빠지면 다시 약을 더 받고 의사를 더 만나야지요. 기막힌 수법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잘 젖을 먹였다는 것, 그리고 이 임신과 수유라는 것 하나가 저를 질투의 고통에서 구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일이 더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아이들이 저와 아내를 구해 준 것이지요. 여덟 해 동안 아내는 다섯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두 자기가 직접 젖을 먹였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이들이요?” 그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죄송합니다, 떠올리시기에 무거우실지도 모르겠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이들은 처형과 처남이 데려갔습니다. 저에게 안 내주더군요. 저는 재산을 그들에게 넘겼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저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미친 사람 격이니깐요. 저는 지금 그들 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이들을 보았지만, 저에게는 내주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키워서, 부모와는 다른 사람으

로 길러 놓을 테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들이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내주지 않을 것도, 저를 믿어 주지 않을 것도 당연합니다. 저도 제가 아이들을 길러 낼 힘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폐허이고, 불구입니다. 다만 제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직 한참 동안은 알지 못할 그것을 저는 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살아 있고, 자기들 둘레의 모든 이들과 똑같이 야만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 보았지요. 아이들을 위해 제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지금은 남쪽에 있는 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작은 집과 작은 정원이 하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아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해와 별들 안에 철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어떤 금속들이 들어 있는지—이건 곧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돼지 같은 짓을 폭로하는 것—이건 어렵지요, 끔찍하게 어렵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래도 들어 주시고 계시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XVI

“선생께서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셨군요. 아이들에 대해서 또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들이 떠도는지요. 아이는 하느님의 축복이다, 아이는 기쁨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한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비슷한 것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고통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다수의 어머니가 끝이끝대로 그렇게 느끼고, 어떤 때는 무심결에 끝이끝대로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형편이 넉넉한 계층 어머니들 대다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아이들이 병들거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고, 이미 낳았더라도 정이 들어 괴로워하지 않도록 직접 젖을 먹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아이가 주는 즐거움—그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몸뚱이의 사랑스러움이 주는 그 즐거움—그들이 겪는 고통보다 작다는 거지요. 아이가 병들거나 잃었을 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병들고 죽을 가능성이 주는 두려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득과 실을 따져 보니, 손해라서 아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지요. 그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대담하게 말하면서, 이 감정이 자기들에게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좋고 칭찬받을 만한 감정이라고 상상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게 있지요—

이 셈으로 그들은 사랑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이기심만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주는 즐거움보다 아이를 두고 느끼는 두려움의 고통이 더 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게 될 그런 아이는 두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할 존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그 사랑할 존재를 희생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한 집안의 그 어머니들을 이 이기심으로 단죄하려고 들면, 우리 양반 집 살림에서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다시 그 의사들 덕에—얼마나 시달려 왔는지를 떠올리면,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첫 시기, 아이들이 셋, 넷이었고 아내가 온통 아이들에게 매여 있던 그 시기 아내의 삶과 상태를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에게 삶이라는 게 아예 없었지요. 무슨 끝없는 위험, 거기서 빠져나옴, 다시 닦쳐온 위험, 다시 절박한 안간힘, 다시 빠져나옴—마치 가라앉는 배 위에 있는 듯한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저를 이기려고 아이들 걱정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너무 손쉽게 모든 일을 아내에게 유리하게 정리해 주었으니까요. 어떤 때는 이런 경우에 아내가 한 모든 일과 말이 다 일부러 한 일과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녀 자신도 끔찍하게 괴로워하고, 아이들 때문에, 그

들의 건강과 병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별주었습니다. 아내에게나 저에게나 그것은 고문이었지요. 그녀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끌림, 먹이고 보살피고 지키려는 동물적 욕구는 대부분 여성이 그러하듯 아내에게도 있었지만, 짐승들에게는 있는 것—상상력과 이성이 없다는 그 한 가지가 아내에겐 없었으니까요. 닭은 자기 병아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병아리가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병이나 죽음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 모든 수단을 알지도 못합니다. 닭에게는 새끼가 고통이 아닙니다. 닭은 자기 병아리에게 본성에 맞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행합니다. 닭에게 새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 보살핌은 아주 분명합니다—따뜻하게 해 주고, 먹여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병아리가 죽으면, ‘왜 죽었지, 어디로 갔지’ 자문하지 않고, 잠깐 꾸룩 꾸룩 울다가 그치고, 전과 같이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여자들은, 또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기르고 키워야 하는지, 아내는 사방에서 끝없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규칙들을 듣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먹여라, 아니, 그렇게 말고 이걸로 먹여라, 입혀라, 마시게 해라, 씻겨라, 채워라, 데리고 나가라—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특히 아내는

매주 새 규칙을 알게 되었지요. 마치 아이들이 어제부터 비로소 태어나기 시작한 듯 말이죠. 그리고 잘못 먹었거나, 잘못 씻겼거나, 제때 안 했거나 해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잘못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건 건강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고통이지요. 그런데 일단 아프기 시작하면, 끝장입니다. 완전한 지옥이지요. 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전제됩니다. 그런 학문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사들이 있고, 그들이 안다고 말이지요. 다는 아니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프면, 그 가장 훌륭한 의사, 살려 줄 그 의사한테 가야 하고, 그러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의사한테 가지 못했거나, 그 의사가 사는 동네에 살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아내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 계층의 모든 여성의 믿음입니다. 사방에서 아내는 오직 이런 얘기만 듣지요.

예카테리나 세묘노브나 댁에서는 이반 자하리치를 제때 부르지 않아서 둘이 죽었고, 마리아 이바노브나 댁에서는 이반 자하리치가 큰딸을 살려냈고, 페트로프 일가는 의사의 권유로 제때 호텔로 옮겨져서 살아남았고,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죽었을 거고, 그 댁은 약한 아이가 있었는데 의사 권유로 남쪽으로 옮겨 가서 아이를 살렸다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생을 괴로워하고 마음을 줄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동물적으로 매여 있는 아이들의 목숨이, 이반 자하리치가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아내가 제때 알아내느냐 못 알아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반 자하리치가 무슨 말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신은 누구보다도 모르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고, 그저 자기가 뭔가 안다고 사람들이 믿어 주기를 그만두지 않게끔 이리저리 둘러대고 있을 뿐이니까요. 아내가 완벽한 동물이었다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내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거고, 신앙 깊은 부인네들이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느님이 주셨고 하느님이 거두셨다, 하느님한테서는 도 망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이들의 삶과 죽음도 사람의 권한 바깥에 있고 오직 하느님의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 아이들의 병과 죽음을 자기가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상황은 이러했지요—가장 약하고, 더할 수 없이 많은 재앙에 노출된 연약한 존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존재들에게 아내는 격렬한 동물적 애착을 느낍니다. 게다가 그 존재들은 아내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 존재들을 지킬 수단은 우리에게겐 가려져 있고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은 큰돈을 주고서야, 그것도 늘 그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거지요.

아이들과의 모든 삶이 아내에게는, 그러므로 저에게도,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다 어떤 질투 장면이나 그저 부부싸움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살아 보자, 책이라도 읽고 생각이라도 좀 해 보자 하다가, 무슨 일에 손을 대 보려고 하면, 갑자기 바샤가 토했다고든지, 마샤가 피가 섞인 변을 봤다고든지, 안드류사한테 발진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 끝났지요, 삶이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어디로 뛰어야 하나, 어떤 의사들을 부르나, 어디로 격리해야 하나? 그리고 관장과 체온계와 몰약과 의사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요. 제대로 된, 단단한 가정생활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상의 위험과 실제의 위험에서 끊임없이 구해 내는 일뿐이었지요. 지금 거의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그게 유난히 두드러졌고요. 아내는 아이를 끔찍이 사랑했고,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있다는 게 우리 삶을 더 낮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망쳐 놓았던 거지요. 게다가 아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툼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긴 뒤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랄수록, 정작 아이들 자체가 점점 더 자주 다툼

의 수단이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일 뿐 아니라, 아이들은 싸움의 도구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이들을 가지고 서로를 때리는 듯했지요.

저와 아내는 각자 편애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싸움의 도구 말입니다.

저는 주로 큰아들 바샤를 가지고 싸우고, 아내는 리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좀 자라고 성격이 분명해지자, 아이들은 저와 아내가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동맹이 되었지요. 그 가없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끔찍하게 괴로워했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편이었고, 큰아들은 아내를 닮은, 아내가 편애하는 아이라 종종 저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지요.”

XVII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지요—이제는 의견 차이가 적대를 낳는 게 아니라, 적대가 의견 차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미리 동

의하지 않았고, 그녀도 똑같았으니까요.

결혼 4년째에 양쪽 다 어떻게든 저절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도, 서로 합의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까지 이야기를 마치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함없이 각자 자기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 제가 고집스레 지키던 의견들이 저에게 그리 소중한 것도 아니어서 양보 못 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반대 의견이었고, 양보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녀는 제 앞에서 늘 자기가 완전히 옳다고 여겼을 테고, 저는 또 제 눈에 그녀 앞에서 늘 거룩한 사람이었지요.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침묵이거나, 짐승들끼리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그런 대화만이 운명처럼 남았습니다.

‘몇 시지? 잘 시간이군. 오늘 저녁은 뭐지? 어디로 갈까? 신문에 뭐라 났어? 의사한테 사람 보내. 마샤가 목이 아파.’

견딜 수 없을 만큼 좁아진 이 대화의 테두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벗어나면, 곧장 분노가 타올랐지요. 커피 때문에, 식탁보 때문에, 마차 때문에, 빈트²² 카드놀이에서 어떻게 패를 냈는지 때문에, 충돌과 미움의 표현이 터져 나왔습니다—어느 쪽에도 아무런 중요성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요. 적어도 제 안에서는 그녀를 향한 미움이 종종 끔찍하

게 끓어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그녀가 차를 따르거나, 다리를 흔들거나,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거나, 후루룩하며 액체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가장 못 된 행위인 양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를 미워했지요. 저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지요, 제 안에서 분노의 시기가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던 그 시기에 맞추어 정확하고 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의 시기—분노의 시기. 활기찬 사랑의 시기—긴 분노의 시기. 더 약한 사랑의 드러남—짧은 분노의 시기. 우리는 그때 이 사랑과 이 분노가 같은 동물적 감정의 양쪽 끝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를 이해했다라면 이렇게 사는 게 끔찍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했지요.

사람이 옳지 않게 살 때, 자기 처지의 비참함을 보지 못하도록 스스로마져 안개에 싸 둘 수 있다는 사실—거기에 사람의 구원이자 형벌이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살림, 가구, 자기와 아이들의 옷차림,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에 관한, 늘 황급하고 긴장된 일거리들로 자기를 잊으려 했습니다. 저에겐 또 저의 술 취

함이 있었지요—공적인 일, 사냥, 카드에 취하기.

우리 둘 다 끊임없이 바빴습니다. 우리 둘 다 느꼈지요, 더 바빠수록 서로에게 더 모질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얼굴 찌푸리는 거야 좋겠지.’ 저는 그녀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밤새 소동으로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회의가 있단 말이다’, ‘당신이야 좋겠지’, 그녀는 생각만이 아니라 입 밖으로도 말했지요.

‘나는 밤새 아이 보느라 한숨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는 안개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보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제가 이대로 늙은 나이까지 살았다라면, 저는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내가 좋은 삶을, 아주 좋지는 않지만 못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고요. 제가 허우적대고 있던 그 불행의 심연과 추악한 거짓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슬에 묶인 두 죄수였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면서, 서로의 삶을 독으로 채우면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지요, 결혼생활의 99퍼센트가 제가 살았던 그런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고, 달리 될 수도 없다는 사실어요.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옳은 삶에서도, 심지어 옳지 못한 삶에서

22 빈트(винт):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카드놀이. 네 사람이 두 편으로 나뉘어 하는 트럼프 게임.

도 이런 일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모가 서로 견딜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도시의 조건들이 마침 필요해지지요. 그래서 도시로 이사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자기 특유의 그 묘한 소리를 두어 번 냈는데, 이제 그것은 완전히 억누른 흐느낌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어떤 역에 다가가고 있었다.

“지금 몇 시입니까?” 그가 물었다.

시계를 보니 두 시였다.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닙니다, 선생께서 피곤하시지요.”

“숨이 막힙니다. 잠깐 줌 걷고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휘청거리며 객차를 가로질러 갔다. 나는 혼자 앉아서, 그가 나에게 한 모든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고,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그가 반대편 문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XVIII

“네, 제가 자꾸 흥분하는군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많은 것을 다르게 보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그렇게 우리는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사는 게 낫지요. 도시에서는 사람이 백 년을 살면서도,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죽고 썩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게 들어차 있으니까요. 일, 사교 관계, 건강, 예술,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교육. 이 사람 저 사람을 맞이해야 하고, 이 집 저 집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걸 봐야 하고, 저 사람이나 저 여자를 들어 봐야 하지요. 도시에서는 어느 순간이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명사가 한 명, 어떤 때는 두세 명씩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기 몸을 치료해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치료해야 하고, 선생들과 가정교사들과 가정부들도 챙겨야 하고요. 그러는데 삶은 텅 비고 또 텅 빈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고, 함께 사는 고통을 덜 느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멋진 일거리가 있었지요—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집에서 살림을 차리는 일, 그리고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하는 일.

한 번의 겨울을 보냈고, 그다음 겨울에 다음과 같은—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정작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만들어 낸—일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비열한 자들이 더 이상 출산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저에게는 그것이 역겨웠습니다. 저는 그것에 맞서 싸웠지만, 그녀가 가벼운 고집으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

아서 저는 굴복했지요. 그 돼지 같은 삶의 마지막 정당화—자녀라는 정당화—가 빼앗긴 것이고, 삶은 더더욱 추해진 겁니다.

농부에게는, 일꾼에게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먹여 살리기 힘들기는 해도 그에게 아이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그의 부부 관계에는 정당화가 있는 거지요. 반면에 우리, 이미 자식을 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자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 지출, 공동상속인, 짐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돼지 같은 삶을 향한 정당화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자식을 떼어 내거나, 아니면 자식을 불행으로, 부주의의 결과로 바라보거나—이쪽이 더 추하지요. 정당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정당화의 필요성조차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육받은 세계의 대다수는 이 방탕에 양심의 거리낌이라곤 조금도 없이 빠져 있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는 거지요. 우리네 살림에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론과 형법이라는 양심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서는 둘 다 깨지지 않습니다. 사회 앞에서 양심에 걸릴 까닭이 없지요. 모두가 이걸 합니다—마리아 파블로브나도, 이반 자하리치도요. 아니면 거지 떼를 늘리거나 자기 사고 생활의 가능성을 빼앗으라는 말입니까? 형법 앞에서 양심에 걸릴 까닭도, 그것을 두려워할 까닭도 없습니다. 아이를 연못과 우물에 던지는 일은 흉하게 망가진 처녀들과 군인 아내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런 자들은 웅당 감옥에 보내야지요. 그런데 우리네는 모든 일이 제때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 비열한 자들이 가르쳐 준 방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내의 몸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아름다움 같지요. 그녀는 그것을 느꼈고, 자신을 챙기는 데 신경 썼습니다. 아내에게 어쩐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도전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멈추고 풍족하게 길러진 채 들떠 있는 서른 살 여자의 모든 힘을 갖춘 상태였지요. 아내의 모습은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사내들 사이를 지날 때면, 그녀는 그들의 눈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래 매여 있다가 잘 먹은, 굴레가 벗겨진 마차의 말 같았습니다. 굴레라는 게 전혀 없었지요. 우리네 여성 99퍼센트에게 굴레가 없듯이요. 저는 그것을 느꼈고, 무서웠습니다.”

XIX

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문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하고는 창밖에 시선을 고정해 채로 삼 분쯤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무겁게 한숨을 쉬고 다시 내 맞은편으로 와 앉았다. 그의 얼굴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은 가없어 보였고, 어쩐지 묘한, 거의 미소에 가까운 무엇이 그의 입가에 주름을 잡고 있었다.

“좀 지쳤습시다만, 말씀드리지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날도 아직 안 밝았고요. 네.”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출산을 멈춘 뒤 살이 올랐고, 그 병—아이들 때문에 영원히 겪던 고통—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았다기보다, 마치 술 취함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린 거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잊고 지냈으나 살아갈 줄은 모르던 하느님의 온 세계가, 그 기쁨과 함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 하느님의 세계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지! 시간이 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어!’

그녀가 그렇게 생각했거나, 아니 그보다는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녀로서는 달리 생각하고 느낄 수도 없었지요. 세상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오직 하나—사랑뿐이라는 가르침 속에 그녀는 길러졌으니까요. 그녀는 결혼했고, 그 사랑이라는 것 중 무엇인가를 받았지만, 약속되고 기대되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을뿐더러 수많은 환멸과 고통과 함께, 뜻밖의 또 다른 고통—아이들까지!—을 얻은 겁니다. 이

고통이 그녀의 진을 빼게 했지요. 그러다가 그 친절한 의사들 덕에,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녀는 기뻐했고, 그것을 시도해 보았고, 그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사랑을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질투와 온갖 분노로 더럽혀진 남편과의 사랑은 이미 그 사랑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깨끗하고 새로운 사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녀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녀는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듯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특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그녀는 늘 그렇듯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러니까 옆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실은 저에게 말하는 식으로, 한 시간 전에 자기가 반대되는 말을 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은 채, 어머니의 보살핌이라는 게 다 기만이라느니, 젊음이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데 자기 삶을 아이들에게 다 바칠 것까지는 없다느니, 반쯤 진심을 담아 대답하게 말하고는 했지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덜 매달렸고, 전처럼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습시다, 그 대신 갈수록 더욱 자기 자신, 자기 외모—숨기긴 했지만요—자기 즐거움, 심지어 자기 수양에까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녀는 전에 완전히 손에서 놓았던 피아노를 다시금 열심히 쳤습니다. 모든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가 또다시 지친 눈을 한 채 창 쪽으로 돌아섰지만, 곧바

로 재차 자신을 다잡으려는 듯 애를 쓰며 말을 이었다.

“네,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더니, 자기 특유의 그 콧소리를 두어 번 냈다.

나는, 그 사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를 떠올리는 것,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애를 써서, 자기를 가로막던 그 장애물을 꿰어 내듯, 단호히 말을 이었다.

“형편없는 인간이었지요, 제 눈에는, 제 평가로는. 그가 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얻었느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못된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분별없는 상태였는지를 증명해 줄 뿐이었지요. 그가 아니어도 다른 자였을 겁니다, 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네, 그는 음악가,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전업 음악가가 아니라, 반은 직업, 반은 사교 인사인 그런 자였지요.

그의 아버지는 지주로, 제 아버지와 이웃해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했고, 자식들—사내아이—가 셋이었지요—은 모두 알아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막 내였던 이 사내만은 파리에 있는 자기 대모에게 맡겨졌지요.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그곳에서 음악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 나와서 음악회에서 연주하게 된 겁니

다. 그 사람은…….”

그에 대해 무슨 험담인가를 하려다 자제한 그가 빠르게 말했다.

“뭐,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해에 러시아로 돌아와 저에게 찾아왔다는 것만 압니다.

아몬드 모양의 축축한 눈, 빨갭게 웃는 입술, 포마드로 잔뜩 군혀 세운 콧수염, 가장 최신 유행을 따른 머리, 한심하게 잘생긴—여자들이 ‘나쁘지 않아’라고 부르는 그런—얼굴, 체격은 약하지만 흉하지는 않은데 다만 엉덩이가 유독 발달해서 여자 같은, 사람들 말로 호텐토트인²³ 같은 그런 모양이었지요. 그들도, 사람들 말로는 음악적이라더군요. 가능한 한 가까이 친한 척 비집고 들어오지만, 눈치가 빨라서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기색이 보이면 곧장 멈출 줄 알았고, 외양에서 품위는 지키면서, 단추 달린 부츠와 화려한 색의 넥타이며 그 밖의, 외국인인 파리에서 익혀 오는, 그것이 색다르고 새로워 늘 여자들에게 잘 먹히는 그런 특유의 파리식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가짐에는 인위적이고 걸치레인 명랑함이 있었지요.

23 호텐토트(готтентоты): 남아프리카의 코이코이족(khoekhoe)을 가리키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명칭. 오늘날에는 비하적 표현으로 여겨져 쓰지 않는다. 톨스토이 시대 유럽에서는 인종주의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모든 일을 암시와 토막으로 말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그것을 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자기가 알아서 채울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말이지요.

바로 그자가 자기 음악과 함께 모든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일이 질투에서 일어났다는 식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긴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법정에서는 제가 속은 남편이고, 더럽혀진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인 거라고 (그들 식으로는 그렇게 부르지요) 결정이 났습니다. 그 덕에 저는 무죄가 되었지요. 저는 법정에서 사건의 의미를 밝혀 보려고 애썼지만, 사람들은 제가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이 음악가의 관계가 어떠했든,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선생께 말씀드린 그것, 곧 저의 그 돼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무서운 심연이, 서로를 향한 미움이라는 무서운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첫 번째 빌미만으로도 위기가 일어나기에 충분하지요. 우리 사이의 다툼은 마지막 시기엔 무엇이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되어갔고, 똑같이 긴장한 동물적 열정으로 번갈아 나타나서 더욱 놀라웠지요.

그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다른 자가 나타났을 겁니다. 질투

라는 빌미가 아니었어도 다른 빌미가 있었을 거고요. 저는 주장합니다, 제가 그랬듯 살아있는 모든 남편은 음란한 행위를 일삼거나, 헤어지거나, 자살하거나, 제가 한 것처럼 아내를 죽이거나 해야 한다고요. 만일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드문 예외일 뿐입니다. 저도 이렇게 끝나기 전에 자살 직전까지 몇 번 갔었고, 아내 또한 독약을 마시려 한 적이 있었지요.”

XX

“맞습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요.

우리는 마치 휴전 상태로 사는 듯했고, 그것을 깨뜨릴 아무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개가 전람회에서 메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하지요. 그녀는 말합니다.

‘메달이 아니고 칭찬 평이야.’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옮겨 뛰면서 비난이 시작됩니다.

‘뭘, 그건 진작에 알려진 얘기지, 늘 그렇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곧, 그 끔찍한 다툼이, 자기 자신이나 아내를 죽이고 싶어 지는 그런 다툼으로 번지리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시작될 것을 안 채, 그것을 불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자제하고 싶지만, 분노가 자기 존재 전체를 사로잡지요. 그녀도 같은, 아니 더 나쁜 상태입니다. 일부러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비틀어 거짓된 의미를 붙입니다.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독에 절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아픈 곳을 그녀는 알 만한 곳마다 알고 있고, 바로 거기를 찌릅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저는 외칩니다.

‘입 다물어!’ 같은 무언가들요.

아내는 방에서 뛰쳐나가 아이들 방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말을 끝까지 하려고, 증명하려고, 그녀를 붙들고,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프게 했다는 듯 굴며 외칩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

저는 외칩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 그녀가 외칩니다, 또는 그와 비슷한 무엇일요. 아이들이 아내에게 달려가지요. 그녀는 아이들을 달랠니다. 저는 말합니다. ‘연기하지 마!’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한테는 다 연기지. 사람을 죽여 놓고도 그 사람이 연기한다고 할 사람이야. 이제 당신을 알겠어. 당신이 바로 그

걸 원하는 거야’

저는 외쳤습니다. ‘아, 차라리 네가 뉘저 버려라!’

그 끔찍한 말이 저 자신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끔찍하고 거친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이 제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말을 외치고는 서재로 도망쳐, 앉아서 담배를 피웁니다. 아내가 현관으로 나가, 떠날 차림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빌어먹을!’ 저는 혼잣말을 하고 서재로 돌아와 다시 누워 담배를 피웁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그녀에게서 벗어나까,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걸 바로잡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까—천 가지 계획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생각하며 담배를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웁니다. 그녀에게서 도망쳐 숨고, 미국으로 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에게서 벗어나면 어떤 점이 좋을지, 다른, 아름답고 완전히 새로운 여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꿈꾸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녀가 죽음으로써, 또는 이혼함으로써 벗어나리라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궁리합니다. 제가 형클어지고 있다는 것, 마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도, 마땅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또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한편 집안일은 흘러갑니다. 가정교사가 와서 묻습니다. ‘마

답은 어디 계세요? 언제 돌아오시지요?’ 하인은 차를 내놓지 묻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갑니다. 아이들, 특히 이미 사정을 아는 큰딸 리자가, 의문에 차고 호의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잠자코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여전히 안 옵니다. 저녁 내내 그녀는 없고,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번갈아 옵니다. 자신의 부재로 저와 아이들 전부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준 그녀를 향한 분노—결국에는 그녀가 돌아오면 끝날 부재이지요—그리고 그녀가 안 돌아오고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라도 그녀를 찾으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처형 집에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묻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래, 하느님이 그녀와 함께 계시기를. 괴롭히고 싶어 한다면 자기가 괴롭든 말든. 그녀가 바라는 게 바로 이것이니깐요. 다음번에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처형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거나 이미 한 거라면……?

열한 시, 열두 시, 한 시. 침실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혼자 누워 기다리는 건 어리석으니까요. 여기서도 눕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세 시, 네 시—그녀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새벽녘에야 잠이 듭니다. 깨어나 보니—그녀는 부재합니다.

집안일은 모두 전과 같이 흘러갑니다만, 모두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의문과 책망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듯 말이죠. 그리고 제 안에서는 여전히 같은 싸움이 벌어집니다—그녀가 저를 괴롭힌다는 데 대한 분노와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요.

열한 시쯤에 그녀의 자매가 그녀의 사자로서 옵니다. 그리고 익숙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끔찍한 상태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저는 아내의 견딜 수 없는 성격에 대해 말하고,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처형이 말합니다.

‘다 자기 일이지요, 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합니다. ‘저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갈라설 거라면 갈라서면 그만입니다.’

처형이 아무 소득 없이 떠납니다. 저는 처형과 이야기하면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고 대답하게 말했지만, 처형이 떠난 뒤 나가서 가엾고 겁먹은 아이들을 보자, 곧 먼저 움직일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꺼이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서성이고, 담배를 피우고, 아침 식사 때 보드카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제가 무의식중에 바라던 것을 이룹니다—제 처지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을 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세 시쯤 그녀가 옵니다. 저를 마주하면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누그러진 줄 알고, 저는 제가 그녀의

책망에 끌려 들어간 거였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숙하고 끔찍하게 지친 얼굴로 말합니다, 자기는 해명하러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가러 왔다고,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고요. 저는 잘못은 제가 아니라, 그녀가 저를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만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저를 바라보고는 말합니다.

‘더 말하지 마,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연극은 못 견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외치고는 자기 방으로 도망갑니다. 그녀 뒤에서 열쇠 소리가 울립니다—그녀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문을 밀어 보지만 답이 없어, 화를 내며 물러섭니다. 반 시간 뒤에 리자가 눈물에 젖어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 났니?’

‘엄마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는 갑니다. 저는 있는 힘껏 문을 잡아당깁니다. 걸쇠가 잘 안 걸려 있어서, 두 문짝이 다 열립니다. 저는 침대로 다가 갑니다. 그녀가 치마와 긴 부츠 차림으로 어색하게 침대에 정신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빈 아편 병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다시 눈물이 흐르고, 마침내 화해합니다. 그것은 화해가 아닙니다, 각자 마음속에는 여전히 같은, 오랜 분노가 있고, 거기에 이번 다툼이 만든 아픔 때문에 더한 짜증이 보태져 있고, 그 아픔을 각자 다 상대 탓으로 돌

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걸 끝내야 했고, 삶은 전과 같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런 다툼, 그리고 더 심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지요—일주일에 한 번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기도 하고, 매일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한 번은 외국 여권까지 받아 왔습니다—다툼이 이틀이나 이어진 적이 있었지요—그런데 그 뒤에 다시 어설픈 해명과 어설픈 화해가 있었고, 저는 남았습니다.”

XXI

“바로 그런 관계에 있던 우리에게 그 사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자가—이름이 트루하츨스키였습니다—모스크바에 와서 저를 찾아왔지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서로 반말을 쓰던 사이였지요. 그는 반말과 존댓말의 중간쯤 되는 어정쩡한 말씨로 반말을 유지해 보려 했지만, 저는 곧장 존댓말 어조를 잡았고, 그도 곧 따라왔습니다. 저는 첫눈에 그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입니다. 어떤 묘한, 운명적인 힘이 저를, 그를 밀어내지 않고, 떼어 놓지 않고, 도리어 가까이 끌어들이는 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이야기하고, 작별하고, 아내에게 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간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지요,

저는 마치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듯, 그의 연주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가 바이올린을 그만두었다고 듣기에 그게 사실 이냐고 물었지요. 그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연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제가 옛날에 연주하던 일을 기억해 냈지요. 저는 이제는 연주하지 않지만, 제 아내가 잘 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를 만난 첫날, 첫 시간 동안 그를 향한 제 태도는, 그 일이 벌어진 뒤에야 나올 법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를 향한 제 태도에는 어떤 긴장이 있었습니다—저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제가 하는 말 한마디까지 다 살피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지요.

저는 아내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곧장 음악 이야기가 나왔고, 그가 아내와 함께 연주해 드리겠다며 청을 했지요. 아내는, 요즘 늘 그러했듯, 매우 우아하고 사람을 끌어당기게 차려입었고, 불안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든 게 분명했지요. 게다가 그녀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켤 즐거움을 얻게 되어 기뻐했습니다—그녀는 그러려고 극장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를 따로 부르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지요—그 기쁨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자 그녀는 곧장 제 감정을 알아채고 표정을 바꾸었고, 서로를 속이는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즐겁다는 듯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음란한 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보듯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이미 본인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이 분명한 대화 주제에만 관심이 있는 척했지요. 그녀는 무심한 척하려 애썼지만, 그녀에게 익숙한, 거짓 미소를 머금은 질투심 가득한 제 표정과 그의 음탕한 눈빛이 그녀를 들뜨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첫 만남부터 그녀의 눈이 유난히 빛나는 것을 보았고, 아마 제 질투 때문이었지요, 그와 그녀 사이에 곧장 일종의 전류가 흐르듯, 같은 표정과 눈길과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면 그도 붉혔고, 그녀가 웃으면 그도 웃었지요. 음악 이야기, 파리 이야기, 온갖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일어났고, 미소를 띤 채 떨리는 허벅지 위에 모자를 얹고 서서, 그녀를 봤다가 저를 봤다가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듯했지요. 제가 이 순간을 기억하는 까닭은, 바로 이 순간에 제가 그를 부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랬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으리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보고, 그녀를 보았지요. ‘내가 너를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말했고,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고, 그러고는 그에게 언제 한 번 저녁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아내와 연주해 보지 않겠느냐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얼굴이 화끈해지더니 겁먹은 듯 사양하며, 자기 솜씨가 그만하지 못하다고 했지요. 그녀

의 그 거절이 저를 더욱 자극했고, 저는 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가 자기 특유의, 깡충한 새 같은 걸음걸이로 우리 집을 나설 때, 양옆으로 가르마를 탄 검은 머리에서 드러난 그의 흰 목덜미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내의 존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저에게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아냐,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굴욕적이어라고, 저는 자신에게 말했지요. 그러고는 곧장 현관에서, 아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저녁에 그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들르도록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는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저녁에 그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왔고, 두 사람은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연주는 한동안 잘 풀리지 않았지요—두 사람에게 필요한 악보들은 없었고, 있는 악보들은 아내가 준비 없는 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고 두 사람의 연주에 공감해서, 그에게 보면대를 세워 주고 악보의 장을 넘겨 주기까지 했지요. 몇 곡을 연주했습니다—몇몇 무언가²⁴와 모차르트의 소나티네 한 곡이었지요. 그는 훌륭히 연주했고, 사람들이 톤이라 부르는 그것이 그에게는 최상급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섬세

하고 고결한 취향이 있었지요.

물론 그가 아내보다 훨씬 뛰어났고, 그녀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녀의 연주를 정중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는 매우 잘 처신했지요. 아내는 오직 음악에만 흥미를 둔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은 매우 단순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음악에 흥미가 있는 척하면서도, 저녁 내내 질투의 고통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가 처음으로 아내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부터, 저는 두 사람 안에 자리 잡은 그 짐승이, 처지나 사교계의 모든 격식과는 별개로, ‘되겠습니까?’하고 묻자 ‘오, 네, 아주요’라고 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제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요.

그녀가 동의했으리라는 데 대해서는 그에게 일말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직, 그 견딜 수 없는 남편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였지요. 제가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²⁴ 무언가(Songs without Words): 가사가 없는 가곡이라는 뜻으로, 가곡과 같은 선율과 양식으로 된 기악 소곡을 이른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소곡집에 있는 작품들 《사냥의 노래》, 《베네치아의 뱃노래》가 유명하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마치 책처럼 읽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유난히 괴롭힌 건, 그녀에게는 저를 향한 끊임없는 짜증 말고는 다른 감정이 없고, 가끔 익숙한 감각이 그 짜증을 끊을 뿐이라는 것, 그런데 이 사내는—외양의 우아함과 신선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큰 음악적 재능, 함께 연주하는 데서 생기는 가까움, 음악, 특히 바이올린이 감수성 예민한 본성에 미치는 영향으로—그녀의 마음에 들 정도가 아니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히 그녀를 사로잡고, 뭉개고, 꼬아 놓고, 그녀에게서 새끼줄을 꼬듯이 마음 내키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는 끔찍하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또는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어떤 힘이 제 의지에 거슬러 저를 그에게 단지 정중할 뿐 아니라 다정하기까지 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 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에게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려고 저 자신을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와의 첫 만남부터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지요. 당장 그를 죽이고 싶은 욕망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를 다정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비싼 포도주를 따라 주었고, 그의 연주에 감탄했다며, 특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그와 이야기했고, 다음

일요일에 식사하러 오라고, 그리고 아내와 다시 연주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제 지인 몇 사람을 부르겠다고, 그의 연주를 듣게 하겠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그날은 끝났습니다.”

포즈드니쇼프가 깊이 동요하여 자세를 바꾸었고, 자기 특유의 그 소리를 냈다.

“이 사내의 존재가 저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묘한 일이지요.”

그는 평정을 지키려고 분명히 애쓰면서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 일이 있는 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뒤에 전람회에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무언가 무거운 게, 돌처럼 제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게 무엇인지 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관을 지나면서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알아챘기 때문이었지요. 서재에 들어서서야 그게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확인하려고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틀리지 않았습시다—그의 외투였지요. 그, 유행 따른 외투요. (그에게 관련된 모든 것은, 제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유난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어보았더니, 역시 그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응접실을 지나지 않고, 공부방을 통해 거실로 갔습니다. 딸 리자는 책을 들고 앉아 있었고, 작은 아이는 유모와 함께 식탁에서 무슨 뚜껑을 돌리고 있었지요. 거실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 고른 아르페지오와 그와 그녀의 목소리

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분명, 두 사람의 말소리를, 어쩌면 입맞춤 소리를 덮으려고 일부러 피아노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맙소사!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엇이 솟구쳤는지! 그때 제 안에 살고 있던 그 짐승을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옥죄어 멈췄다가, 그러고는 망치로 치듯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노에서나 그렇듯이, 가장 주된 감정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엾음이었지요.

‘아이들 앞에서, 유모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모습이 무서웠던 게 분명합니다, 리자도 묘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좋지?’ 저는 자문했습니다. ‘들어가? 안 돼,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유모는 마치 제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 저를 쳐다봅니다. ‘안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자신에게 말하고는, 곧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위로 휘어진 크고 흰 손가락으로 그 아르페지오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펼쳐진 악보 위에 몸을 굽힌 채 그랜드 피아노 옆의 모서리에 서 있었지요. 그녀가 먼저 저를 보았는지 들었는지, 어쨌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놀랐지만 안 놀란 척한 건지, 정말 안 놀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움찔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다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도 뒤늦게서요.

‘당신이 와서 정말 기뻐, 우리, 일요일에 뭘 연주할지 정하

지 못했거든.’

그녀는 우리 둘만 있었다라면 저에게 쓰지 않았을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말과 자기와 그를 묶어 ‘우리’라고 한 그것이 저를 분노케 했지요. 저는 말없이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고, 곧바로 미소를—저에겐 그것이 비웃음으로 비쳤습니다—머금고서, 일요일 준비를 하려고 악보를 가져왔는데 무엇을 칠지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는 둥, 더 어렵고 고전적인 곡, 그러니까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칠지, 아니면 짧은 소품들을 칠지를 두고요, 라고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단순해서 트집 잡을 데가 없었는데도, 저는 이 모든 게 거짓이고, 두 사람이 저를 어떻게 속일지를 짜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질투심 가득한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네 사교 생활에서는 누구나 다 질투심이 강한 인간들이지요) 가장 괴로운 처지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가장 큰, 가장 위험한 가까움이 용납되는 그 사교계의 격식들입니다. 무도회에서의 가까움, 의사와 그의 여환자 사이의 가까움, 예술과 회화 작업에서의 가까움, 무엇보다 음악 작업에서의 가까움을 가로막으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장 고결한 예술인 음악에 몰두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가까움이 필요한 거고, 그 가까움에 비난할 만한 점은 없으며, 어리석고 질투심 많은 남편만이 거기에 무슨 좋지 못한 것을 본다는 식이지요. 그

런데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의 큰 부분이 바로 이 작업 중에, 특히 음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ですよ. 저는 분명, 제 안에 드러난 그 당혹감으로 두 사람을 어색하게 했습니다—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저는 마치 거꾸로 든 병 같았습니다, 너무 가득 차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이요. 저는 그를 욕하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다시금 그에게 정중하고 다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는 척하고, 그의 존재가 저에게 괴로울수록 그에게 더 다정하게 굴게 만드는 그 묘한 감정에 따라, 저는 그에게 그의 취향을 신뢰하니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어왔을 때 제가 갑자기 겁먹은 얼굴로 들어와 입을 다물어 만들어진 거북한 인상을 가시게 할 만큼만 머물렀고, 내일 무엇을 칠지 이제 결정했다는 양 시치미를 떼며 떠났지요. 저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비하면, 무엇을 칠지의 문제는 두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정중하게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지요. (한 가족의 평안을 깨뜨리고 행복을 망치려 온 사람을 어떻게 배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난히 다정하게 그의 회고 부드러운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XXII

“그날 온종일 저는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지요. 그녀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향한 미움이 솟구쳐서 저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저에게 언제 떠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관청 모임에 가야 했지요. 저는 언제 갈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길에 가져갈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식탁에 앉아 있다가, 잠자코 서재로 갔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그녀는 한 번도 제 방에 오지 않았고, 그 시간에는 더더욱 그러했지요. 저는 서재에 누워 화를 삭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끔찍하고 추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그녀가 우리야의 아내²⁵처럼 이미 저지른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 늦은 시간에 저에게 오는 것이라고요.

‘정말로 나에게 오는 건가?’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

25 우리야의 아내: 『구약 성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인물. 다윗 왕이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와 정을 통한 뒤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 죽게 한 사건. 간통과 그 은폐의 대표적 일화로 자주 인용된다.

니다. 만약 정말 나에게 오는 거라면, 그렇다면 내 짐작이 옳은 거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미움이 솟구쳤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발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지나치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지 않을 셈인가? 아니지요, 문이 삐걱 소리를 내고, 문가에 그녀의 키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의 모습이 나타나고, 얼굴과 눈에는 그녀가 숨기려 하지만 제가 보고 그 의미를 아는 머뭇거림과 환심 사는 빛이 떠올라 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어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그녀를 계속 바라보면서 저는 담뱃갑을 집어 들고 담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같이 좀 앉으려고 왔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의 제 곁에 바짝 와서 앉으며 제게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와 스치지 않으려고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당신이 일요일에 내가 연주하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줄 알아요?’

‘그럼, 잘 보인다니 축하해. 나는 당신이 노는 여자처럼 굴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당신이 마부처럼 욕할 거면, 나는 가겠어요.’

‘가, 가는데 알아 뒤, 당신한테 가족의 명예가 소중하지 않다면, 나한테 소중한 건 당신이 아니야, (망할 놈의 당신은 됐고) 가족의 명예야.’

‘아니, 대체, 뭐가요?’

‘꺼져, 제발 좀 꺼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착한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화가 나고 마음 상했습니다. 일어났지만 나가지는 않고, 방 가운데에 멈춰 섰지요.

‘당신은 결국 못 견딜 사람이 됐어요.’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사라도 당신과는 못 살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고는, 늘 그러하듯 저를 가능한 한 더 아프게 찌르려고, 제 누이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누이와 있었던 일이었지요, 제가 자제하지 못하고 누이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던 일입니다. 아내는 그것이 저를 괴롭게 한다는 걸 알고서, 바로 그 부분을 찢러낸 겁니다).

‘이제 당신한테는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모욕하고, 짓밟고, 망신 주고, 잘못된 또 나한테 돌리겠다는 거지.’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찍이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무서운 분노가, 그녀를 향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분노를 처음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난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분노를 의식하고 자문했지요, 이 감정에 몸을 맡겨도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곧장 답했습니다, 좋다, 이게 아내를 겁먹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곧장 이 분노에 맞서 기는커녕, 저는 그것을 제 안에서 더 부추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안에서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꺼져,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식적으로 분노에 찬 어조를 더 강하게 했지요. 제가 분명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녀가 어찌나 겁을 먹었던지 나갈 힘조차 없이 그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바샤,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가!’ 저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오직 너만이 나를 광기로 몰아갈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지지 못해!’

제 광기에 길을 내주자, 저는 거기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기의 최고 수준을 보여 줄 무언가 보통 아닌 일을 더 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를 때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무섭게 일었지만,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광기에 길을 내주려고 저는 책상 위에서 압지²⁶를 집어, ‘나가!’ 다시 한번 외치며, 그녀를 비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를 밟아가게 잘 겨냥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췄지요. 그리고 곧장, 아내가 아직 보고 있는 동안 (저는 그녀가 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책상 위의 물건들, 촛대, 잉크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며 외치기를 계속했습니다.

‘나가! 꺼져!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지지 못해!’

그녀가 나갔습니다—그러자 저는 곧장 멈추었습니다.

한 시간 뒤에 유모가 저에게 와서, 아내가 히스테리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고, 웃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채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픈 거였습니다.

새벽녘에 아내가 안정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던 그 감정에 이끌려 화해했습니다.

아침에, 화해 뒤에 제가 트루하츨스키 때문에 당신을 질투했다고 고백하자, 아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 말로는, 그런 인간한테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자기에게도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였지요.

‘그런 인간한테 점잖은 여자가 음악에서 얻는 즐거움 말고 다른 무엇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정 그렇다면 나는 다시

²⁶ 압지(пресс-папье): 종이를 눌러 두는 무거운 문진. 19세기 책상의 일반적인 사무용품으로, 청동·대리석 등으로 만들었다.

는 그를 안 보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일요일에라도, 모두 초대해 놓았지만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본다고 그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다만 한 가지 거슬리는 건, 누군가가, 특히 그 본인이, 자신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두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세요.’

아내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믿었지요. 그녀는 이 말로써 자기 안에 그를 향한 경멸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자기를 그에게서 지키기를 바랐지만, 잘되지 않았지요.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저주받을 음악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고, 일요일에 손님들이 모였고, 두 사람은 다시 연주했습니다.”

XXIII

“제가 매우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요. 우리네 평범한 삶에서 허영심이 없다면, 살아갈 거리도 없을 테니까요. 자, 일요일에 저는 식사와 음악이 있는 저녁 모임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사 거리도 제가 직접 사들였고, 손님들도 청했지요.

여섯 시쯤 손님들이 모였고, 그도 천박한 다이아몬드 컵

스 단추를 단 연미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행동했고, 무엇이든 동의와 이해의 작은 미소를 띠고 재빨리 답했지요. 아시지요,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그것이라는 그 특유의 표정 말입니다. 그에게 있는 점잖지 못한 모든 것을 저는 이제 특별한 만족감으로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안심시켜야 했고, 그가 제 아내에게는 그녀가 말한 대로 자기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인간임을 보여 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는 자신에게 질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미 그 고통에 진을 빼 좀 쉬어야 했고요. 둘째로, 아내의 다짐을 믿고 싶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투하지 않으면서도, 식사 모임에서,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기 전 저녁의 전반부 동안 저는 그와 아내에게 자연스럽지 못했지요. 저는 여전히 두 사람의 움직임과 눈길을 좇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식사 같았지요—지루하고, 가식 어렸습니다. 꽤 일찍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 저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제가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요. 그가 바이올린을 가져왔던 일, 케이스를 열어 어떤 부인이 그를 위해 수놓아 준 보자기를 벗긴 일, 바이올린을 꺼내 조율하기 시작한 일이 기억납니다. 아내가 짐짓 무심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던 일도 기억나지요. 그 표정 아래로 저는 아내가 큰 머뭇거림을—주로 자기 숨씨에 관한 머뭇거림을—숨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

짓 무심한 그 표정으로 그녀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고, 으레 그러하듯 피아노에서 라 음이, 바이올린에서 피치카토가 울리고, 악보가 놓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무어라 한마디 주고받더니, 시작되었지요. 그녀가 첫 화음을 짚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하고, 엄숙하고, 호의 어린 표정이 떠올랐고,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러운 손가락으로 현을 뜯어 피아노에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가 멈추고는 자기 특유의 그 소리를 잇달아 몇 번 냈다. 말을 시작하려다가 코를 훌쩍이고는 다시 멈추었다.

“그들은 베토벤의 크로이체르 소나타²⁷를 연주했습니다. 첫 프레스토²⁸를 아십니까? 아시지요?!”

그가 외쳤다.

“아……! 끔찍한 곡이지요, 그 소나타가. 바로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끔찍한 무엇입니다. 도대체 그

게 뭐란 말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악이란 뭐니까?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악은 영혼을 고양시키는 식으로 작용한다고요—허튼소리고, 거짓입니다! 음악은 작용합니다, 무섭게 작용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그러나 결코 영혼을 고양시키는 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은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자극하는 식으로 작용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음악은 저로 하여금 저 자신, 저의 참된 처지를 잊게 하고, 저를 어떤 다른, 제 것이 아닌 처지로 옮겨다 놓습니다. 음악의 영향 아래서는, 제가 사실은 느끼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음악은 하품이나 웃음처럼 작용한다고요. 저는 잠이 안 와도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하품하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는 사람의 웃음을 들으면 웃습니다.

음악은 곧장, 직접적으로 저를, 그 음악을 쓴 사람이 있던 그 영혼의 상태로 옮겨다 놓습니다. 저는 그와 영혼으로 하나가 되고, 그와 함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 가지요. 그러나 제가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가령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쓴 사람, 베토벤은 자기가 왜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았지요—그 상태가 그를 어떤 특정한 행동들로 이끌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그 상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

²⁷ 크로이체르 소나타: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9번 A장조 Op.47(1803).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로돌프 크로이체르(Rodolphe Kreutzer)에게 헌정되었다. 격렬한 첫 프레스토와 부드러운 안단테, 정념의 마지막 악장으로 이루어진 대곡이다.

²⁸ 프레스토(presto): 매우 빠르게. 안단테(andante): 걷는 걸음 정도로 느리게. 피치카토(pizzicato): 활을 쓰지 않고 손가락으로 현을 뜯어 소리 내는 주법. 모두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음악 용어다.

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그저 자극할 뿐, 끝맺지 않는 거지요. 자, 군가를 한 곡 연주하고, 군인들이 그 군가에 맞추어 행진하면 음악은 제 일을 마친 겁니다. 춤곡을 연주하고, 제가 거기 맞춰 춤을 추면 음악은 제 일을 마친 겁니다. 자, 미사를 노래하고, 제가 성찬을 받았으면 그것도 음악이 제 일을 마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자극만 있고, 그 자극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어떤 때는 그토록 무섭게, 그토록 끔찍하게 작용하는 거지요. 중국에서는 음악이 국가의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마음 내키는 사람이 아무나 한 사람이나 여럿을 최면에 빠뜨려 자기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 하게 두는 일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최면술사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부도덕한 인간이어도 된다니요.

무서운 도구가 아무개의 손에 들려 있는 셈입니다. 가령, 이 크로이체르 소나타, 그 첫 프레스토라는 것어요. 가슴이 드러난 부인들 가운데에 웅접실에서 이 프레스토를 연주하는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연주하고 박수하고, 그러고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장 최근의 가십을 떠드는 그런 일이요. 이런 곡들은 어떤 특정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이 음악에 어울리는 어떤 특수하고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할 때만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연주하고, 그 음악이 자기를 향해

퍼 놓은 그것을 하는 거지요. 장소에도 시간에도 어울리지 않는 식으로, 아무 데에도 드러나지 않는 에너지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망가뜨리는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 곡이 끔찍하게 작용했지요. 저에게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감정과 가능성이 열린 듯했습니다.

‘아, 이렇게야, 내가 전에 생각하고 살아 온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구나.’

무언가가 영혼 속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듯했지요. 제가 알게 된 그 새로운 게 무엇이었는지를 저 자신에게 짚어 줄 수는 없었지만, 그 새로운 상태를 향해 있는 자각이 매우 기뻐합니다. 같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아내와 그도 다른 빛 속에서 떠올랐지요.

이 프레스토 뒤에 두 사람은 훌륭하지만 평범한, 새롭지 않은, 범속한 변주가 든 안단테와 매우 약한 종악장을 연주해 냈습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의 청에 따라 에른스트²⁹의 비가와, 그 밖에 이런저런 소품들을 더 연주했지요. 모두 좋았지만, 모

29 에른스트(Heinrich Wilhelm Ernst, 1812-1865): 모라비아 출신의 바이올린 명인이자 작곡가. 《비가(Élégie)》Op.10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짧고 정념에 찬 살롱용 소품이다.

두 첫 곡이 만든 인상의 100분의 1조차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첫 곡이 만든 인상의 배경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저는 저녁 내내 가뿐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그날 저녁 같은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주하는 동안의 그 빛나는 눈, 엄숙함, 표정의 목직함, 그리고 연주가 끝난 뒤의 어떤 완전히 풀어진, 약하고, 가엾고, 행복한 미소. 저는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거기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그녀도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구나, 그녀에게도 저에게처럼 새로운, 한 번도 겪지 못한 감정들이 마치 떠오르듯 열린 것이구나, 라고만 여겼습니다. 저녁은 평온하게 끝났고,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제가 이틀 뒤 군 모임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트루하츨스키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번에 찾아올 때 다시 오를 저녁 같은 즐거움을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가 저 없이 우리 집에 들르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기분 좋은 일이었지요. 결과적으로, 그가 떠나기 전에 제가 돌아오지 못할 테니, 우리 둘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즐거움으로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그가 준 즐거움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도 아내에게 완전히 작별 인사를 했지요. 두 사람의 작별이 저에게는 가장 자

연스럽고 점잖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게 훌륭했지요. 우리 부부는 둘 다 그 저녁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XXIV

“이틀 뒤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평온한 기분으로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군청으로 떠났습니다. 군청에는 늘 일거리가 많았고,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작은 세계가 펼쳐졌지요. 저는 이틀 동안 하루에 열 시간씩 회의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 중인 곳으로 아내한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지요.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 작은아버지에 대해, 유모에 대해, 장을 본 물건들에 관해 썼고, 지나가는 말로,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일인 양, 트루하츨스키가 약속한 악보를 가지고 들렀고, 또 연주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사양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가 악보를 가지고 오기로 약속했다는 기억이 없었지요. 그때 작별 인사를 완전히 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불쾌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많아서 깊이 생각할 짬이 없었고,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와서야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트루하츨스키가 저 없이 한 번 더 다녀갔다는 것 말고도, 편지 전체의 어조가 저에게 무리해서 꾸민 듯이 느껴졌지요. 광기 어린 질투의 짐승이 자

기 우리 안에서 으르렁대며 뛰쳐나오려 했지만, 저는 그 짐승이 두려워서 얼른 가두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게 얼마나 비열한 감정인지!’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쓴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군청 모임 때 새로운 곳에서는 저는 늘 한참을 잠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갑자기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깨어나는 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었습니다. 깨자마자 그녀를 향한 생각, 그녀를 향한 제 육체적 사랑, 그리고 트루하츨스키를 향한 생각, 그녀와 그 사이에 모든 일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끔찍함과 분노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다잡았지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야.’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녀와 나 자신을 이렇게 편협할 수 있는가, 그런 끔찍한 일을 짐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요.

‘고용된 바이올린 연주자 정도 되는, 변변치 못한 인간으로 알려진 그자, 그리고 그 옆에는 점잖고, 존경받는 가족의 어머니, 나의 아내가 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떻게 그 일이 없을 수 있겠나?’

어떻게 가장 단순하고 알기 쉬운 그것이—내가 그녀와 결혼하면서 그 이름으로 결혼했고, 내가 그녀와 살면서 그 이름으로 살았고, 나에게도 그녀한테서 필요했던 단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 음악가에게도 필요했던 바로 그것이—없을 수 있겠는가?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 건강하고(그가 갈비뼈를 우적우적 찢고 붉은 입술로 포도주잔을 게걸스럽게 감싸 쥐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잘 먹은, 매끈한 인간이고,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마침 눈앞에 나타나는 쾌락은 누리는 게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음악이라는 끈, 감각의 가장 정교한 음욕이 있다. 무엇이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모든 것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녀가? 그녀가 누구인가?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수수께끼다. 나는 그녀를 모른다. 나는 그녀를 다만 동물로 서만 안다. 그런데 동물을 무엇이 막을 수 있는가, 무엇이 막아야 하는가?

그제야 비로소 저는 그 저녁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 뒤에 두 사람이 어떤 정념에 찬 곡을, 누구의 곡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음란하리만치 감각적인 곡을 연주했을 때의 그 얼굴들을요.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말했지요. ‘그 저녁에 두 사람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분명하지 않았나? 그 저녁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었을뿐더러, 두 사람이, 무엇보다 그녀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어떤 부끄러움까지 느끼고 있었다는 게 보이지 않았는가?’ 제가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녀가 약하게, 가엾게, 행복하게 웃으며 붉어진 얼굴에 흐른 땀을 닦아 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두 사람은 이미 그때 서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저녁 식사 때 그가 그녀에게 물을 따라 주는 그 순간에만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고 살짝 웃었지요. 살짝 미소가 어린 그 가로채인 눈길을 이제 저는 끔찍한 마음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래, 모든 게 끝났다.’

어떤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고, 곧장 다른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말을 했지요, ‘뭔가가 너를 사로잡았을 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섬뜩해져서, 저는 성냥을 켜고, 그러자 어쩐지 노란 벽지를 두른 이 작은 방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담배에 불을 붙였고, 풀리지 않는 모순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늘 그러하듯 담배를 피웠지요. 자신을 안개 속에 가둬 그 모순을 보지 않으려고, 저는 담배를 한 대씩 잇따라 피웠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고, 다섯 시에, 이 긴장 속에 더 머물 수 없으니 당장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나, 저를 돌봐 주던 사환을 깨워 말을 준비시키도록 보냈습니다. 회의에는, 긴급한

일로 모스크바에 호출되어 가니 다른 위원이 저를 대신해 달라는 짧은 글을 보냈지요. 여덟 시에 저는 타란타스³⁰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XXV

차장이 들어와서, 우리 촛불이 다 타 버린 것을 알아채고, 새 초를 끼우지 않고 그것을 꺼 버렸다. 밖에는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차장이 객차에 있는 동안 내내, 포즈드니쇼프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잠자코 있었다. 차장이 나간 뒤에야 그는 자기 이야기를 이어 갔고, 어두운 객차 안에는 흔들리는 객차의 유리창이 빼적대는 소리와 사무원의 고른 코골이 소리만이 들렸다. 새벽의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나는 이미 그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점점 더 동요하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목소리만 들렸다.

“마차로 서른다섯 베르스타를 가야 했고, 철도로 여덟 시간

³⁰ 타란타스(тарантас): 19세기 러시아의 장거리 여행용 사륜마차. 차체와 차축 사이에 긴 나무 막대를 두어 진동을 줄였고, 비포장 흙길을 다니기에 적합했다. 짐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을 가야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길은 훌륭했지요. 밝은 해가 비치는 서리 어린 가을이었습니다. 아시지요, 기름진 길에 바퀴 자국이 찍히는 그 계절을 말입니다. 길은 매끄럽고, 빛은 밝고, 공기는 사람을 깨우는 듯했지요. 타란타스를 타고 가는 길은 좋았습니다. 날이 밝고 제가 길에 나서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말들을, 들뜬을, 마주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렸지요. 어떤 때는 그저 길을 가는 것일 뿐이며, 저를 불러낸 그 모든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잊는 것이 저에게는 유난히 기뻐졌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떠올리면,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 보면 알 거다, 지금은 생각하지 마라.’

게다가 길 중간에서 길을 지체시키고 저를 더욱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한 사건이 일어났지요—타란타스가 부서져서 고쳐야 했던 겁니다. 이 고장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정대로 다섯 시에 모스크바에 도착한 게 아니라 열두 시에 도착했고, 집에는 한 시쯤에 도착했지요. 급행을 놓치고 보통열차를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차 부르러 다녀온 일, 수리, 쉼 치른 일, 여인숙에서 차를 마신 일, 마당 지기와 나눈 대화—이 모든 게 저를 더욱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했지요. 땅거미가 꺼질 무렵에는 모든 게 준비되었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밤길은 낮의 길보다 더 좋았지요.

초승달이 떴고, 살짝 서리가 내렸고, 여전히 훌륭한 길, 말들, 즐거운 마부—저는 길을 가며 누렸습니다.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 어쩌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누렸는지도 모르겠지요. 삶의 즐거움들과 작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의 그 평온한 상태, 자기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가능성은—마차 여행과 함께 끝났습니다. 객차에 오른 순간 완전히 다른 일이 시작되었지요. 객차에서 보낸 그 여덟 시간의 여정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무엇이었습니. 객차에 오르자 제가 이미 도착해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철도가 사람에게 그렇게 자극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지, 어쨌든 객차에 앉은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상상을 다스릴 수 없었고, 상상은 저의 질투를 부추기는 장면을—하나씩,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음란하게—멈추지 않고 보통 아닌 선명함으로 저에게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같은 한 가지에 대해서요—거기서, 저 없이, 어떻게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 장면을 들여다보며 분노와 격노로, 그리고 자기 굴욕에 도취하는 듯한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눈을 떼 수 없었습니다. 안 볼 수 없었고, 지을 수 없었고,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뿐 아니라, 이 상상의 장면을 들여다볼수록 저는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떠오르던 그 선명함이, 제가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 노릇을 하는 듯했지요. 어떤 막마가, 마치 제 의지와 어긋나게, 가장 끔찍한 추측을 지어내어 저에게 일러 주는 것 같았습니다. 트루하츠헤프의 형과 오래 전에 나누었던 어떤 대화가 떠올랐고, 저는 그 대화를 트루하츠헤프와 제 아내에게 끼워 보며, 어떤 황홀감 속에서 그것으로 제 가슴을 찢어 댔지요.

아주 오래된 일이었지만, 그때 그것이 떠오른 겁니다. 트루하츠헤프의 형은, 제 기억에, 어느 날 공창에 다니느냐는 물음에, 단정한 사람은 병에 걸릴 수 있는 데에 가지 않고, 또 더럽고 추한데, 항상 단정한 여자를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답했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동생이 제 아내를 찾아낸 겁니다. ‘사실 아내는 더는 한창때가 아니고, 옆쪽 어금니 하나가 없고, 살집도 좀 붙었지만.’ 저는 그를 대신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뭐 어찌겠어, 있는 걸로 씹먹어야지.’—‘그래, 아내를 자기 내연녀로 받아 주는 거니,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이지,’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안전하기도 하고.’—‘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말했지요.

‘아무것도, 그런 비슷한 일도 없어. 그런 일을 짐작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 내가 그를 질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자기에게 굴욕이라고 그녀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 그런

데 그녀는 거짓말을 한다, 모두 거짓이다!’ 저는 외쳤고—다시 시작되었지요……, 우리 객차에는 승객이 두 명뿐이었습시다—말수가 적은 노부부였는데, 두 사람도 어느 역에선가 내려서 저는 혼자 남았지요. 저는 우리에 갇힌 짐승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가고, 어떤 때는 휘청거리며 걷기 시작해 객차에 더 속도를 붙이려 안달했지요. 그런데 객차는 의자며 유리며 모두 변함없이 똑같이 흔들리고 있었습시다. 지금 이 객차처럼요…….”

포즈드니쇼프는 벌떡 일어나 몇 발짝을 건너니 다시 앉았다.

“아, 저는 두렵습니다, 철도 객차가 두렵습니다, 끔찍함이 저를 덮칩니다. 그래요, 끔찍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지요. ‘다른 것을 생각하자. 자, 가령 내가 차를 마신 그 여인숙 주인을 생각해 보자.’ 그러자 상상 속으로 눈에 긴 수염을 기른 마당지기와, 우리 바샤와 또래인 그의 손자가 떠오릅니다. 내 바샤! 그 아이가 음악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 가엾은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녀에게 무슨 상관이람! 그녀는 사랑한다……, 다시 같은 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 병원 시찰을 생각해 보자. 그렇지, 어제 환자가 의사에게 불만을 토로한 일. 그런데 그 의사가 트루하츠헤프 같은 콧수염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자가 얼마나 뻔뻔하게……, 두 사람이 다 같이 저를 속이고

있었지요, 그가 떠난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모두 그와 관련이 있었지요. 저는 끔찍하게 고통받았습니다.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은 모름에, 의심에, 갈라짐에, 그녀를 사랑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를 모름에 있었지요.

고통이 너무 강해서, 저는 매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철로 위로 나가 객차 아래 선로에 누워 끝내 버리자는 생각이요. 그러면 적어도 더 이상 흔들리지도, 의심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것을 못 하게 막은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가없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곧장 그녀를 향한 미움을 끌어내고 있었지요. 그를 향해서는 어떤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미움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굴욕당했고 그가 이겼다는 자각이기도 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그녀를 향해서는 무서운 미움이었습니다.

‘나는 자살하고 그녀를 남겨 둘 수 없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적어도 내가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지요.

정신을 딴 데로 돌리려고 저는 멈추는 역마다 내렸습니다. 어느 역의 매점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보고는 곧장 저도 보드카를 마셨지요. 제 옆에는 유대인 한 사람이 서서 같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걸어 왔고, 저는 그저 제 객차에 혼자 남지 않으려고 그를 따라, 더럽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해

바라기 씨의 겹질이 사방에 흩어진 그의 3등 객차로 갔지요. 거기서 그의 옆에 앉았는데, 그가 무어라 많이 떠들면서 우스개를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그것을 알아채고 자기에겐 좀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서, 저는 일어나 다시 제 객차로 돌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인지, 내가 괴로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저는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자리에 앉았지만, 차분한 생각 대신 곧장 또 같은 게 시작되었습니다. 추론 대신, 장면과 상상이요. ‘몇 번이나 내가 이렇게 괴로워했던가.’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질투의 발작들을 떠올리며요), ‘그리고 그때마다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걸로 끝났다. 이번에도, 어쩌면, 아니 분명히 그녀가 평온하게 자는 모습을 볼 거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 나를 보고 기뻐할 거고, 그 말과 눈빛에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모든 게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느낄 거다. 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니지,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었고,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어떤 목소리가 저에게 말했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요, 형벌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향한 욕정을 잃게 하려면, 매독 환자 병동으로 데리고 갈 게 아니라, 제 영혼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영혼을 찢어 대던

그 악마들을 보여 줄 일입니다! 끔찍한 점은, 제가 그녀의 몸을 마치 제 몸인 것처럼 완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동시에 그 몸을 제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 몸이 제 것이 아니고, 그녀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다룰 수 있고, 그녀는 제가 원하는 식으로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녀에게도요. 그는, 교수대 앞의 반카-열쇠지기³¹처럼, 어떻게 설탕 같은 입술에 입을 맞췄는지 등의 노래를 부르겠지요. 그러면 그가 이긴 거고요. 그녀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원한다면, 그리고 제가 그녀가 원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더 나쁘지요—차라리 했더라면 제가 알 수 있게, 모르는 채로 있지 않을 텐데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로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땅히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을 그녀가 바라지 않기를 원했지요. 완전한 광기였습니다!”

31 반카-열쇠지기(Ванька-ключничек): 러시아 민요 《반카-열쇠지기》의 주인공. 공작부인과 경을 통한 죄로 교수형을 받는 상황에서, 사형 직전 자기가 어떻게 ‘설탕 같은 입술’에 입을 맞췄는지를 노래로 자랑한다는 이야기다. 죄와 자량의 결합을 보여 주는 대표적 민요다.

XXVI

“마지막 직전 역에서, 차장이 표를 거두러 왔을 때, 저는 짐을 챙겨 차량 끝 칸막이로 나갔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다, 곧 결판이 난다는 자각이 제 동요를 더 거세게 만들었지요. 돌연 추위가 느껴졌고, 턱이 떨어져 이가 부딪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 무심결에 역사를 나와, 마부를 잡아 마차에 올라 떠났지요. 저는 길을 가면서, 드문드문한 행인들과 마당지기들, 그리고 가로등과 제 마차가 앞으로, 뒤로 던지는 그림자들을 둘러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 베르스타쥔 갔을 때, 발이 시려져 와서, 객차에서 모직 양말을 벗어 가방에 넣었던 것이 떠올랐지요. 가방은 어디에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있군. 그런데 바구니는 어디에 있지? 짐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지만, 영수증을 꺼내 보고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갈 가치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길을 갔습니다.

지금 아무리 떠올려 보려 해도, 그때의 제 상태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었지? 무엇을 원했었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서 무언가 끔찍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자각만 있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 중요한 일이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제가 미리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앞선 모든 순간이 제 기억 속에서 어두운 빛깔을 띠게 된 것일지도 모르지요.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시 직전이었지요. 현관 앞에는 마부 몇 명이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불 켜진 창이 있는 데를 보고서요(불 켜진 창은 우리 집, 거실과 응접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창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지 쫓아 보지도 않고, 무언가 끔찍한 것을 기다리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저는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매우 미련한 일꾼 예고르가 문을 열었지요. 현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옷들 곁의 옷걸이에 걸린 그의 외투였습니다. 놀랐어야 했겠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역시 그렇군,’ 저는 자신에게 말했지요.

예고르에게 누가 와 있느냐고 묻자 그가 트루하츠헬스키 이름을 댔고, 저는 또 다른 사람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지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가 그렇게 답할 때의 그 어조를 저는 기억합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풀어 놓아 저를 기쁘게 해 주고 싶다는 듯한 어조였지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 그래.’ 마치 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듯합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별 탈 없이 잘 있습니다. 자기 시작한 지 한참 되었어요.’

숨을 내쉴 수도, 떨리는 턱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그것과는 다르군. 전에는 불행을 예상했고 다 별일 없이 평소처럼이었는데, 이번에는 평소가 아니라, 내가 떠올렸고 단지 떠올린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있는 거다. 이게 다 그것이다…….’

저는 거의 흐느낌이 나올 뻔했지만, 곧장 악마가 일러 주었지요.

‘너는 울고 감상에 빠져 있어라, 그러면 두 사람은 평온히 흩어지고, 증거도 안 남을 거고, 너는 평생 의심하고 괴로워하게 될 거다.’

그러자 곧장 자기 연민이 사라지고 묘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믿지 못하시겠지만—기쁨이라는 감정이요. 이제 내 고통이 끝날 거다, 이제 내가 아내를 벌할 수 있다,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분노에 길을 내줄 수 있다, 라는 기쁨이요. 저는 분노에 길을 내주었습니다—저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납고 교활한 짐승이요.

‘됐어, 됐어,’ 응접실로 들어가려는 예고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나 해 줘. 어서 마부를 잡아서 다녀와. 여기 영수증이야, 짐을 찾아와. 가 봐.’

그가 외투를 가지러 복도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가 두 사

람을 깜짝 놀라게 할까 두려워, 저는 그의 좁은 방까지 따라가 그가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지요. 응접실에서, 다른 방 너머에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칼과 접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하고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거지요.

‘지금만 안 나왔으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고르가 아스트라한 어린양³² 깃이 달린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내보내고 문을 잠갔고, 혼자 남았다는 것, 이제 곧장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섬뜩해졌지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 아내가 더는 결백하지 않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곧 아내를 벌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흔들림이 있어서, 저는 자신에게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없었지요. 모든 게 돌아올 수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그와 단둘이, 이 밤에! 이젠 이미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다. 아니, 더 나쁜 거

다—죄에서의 그 대담함, 그 뻔뻔함이 결백의 표징이 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모든 게 분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한 가지만 두려워했습니다—두 사람이 흩어져 달아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거짓을 지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명백한 증거와 별할 가능성을 저에게서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요. 두 사람을 빨리 덮치기 위해 저는 발끝으로 그들이 앉아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응접실을 거치지 않고, 복도와 아이들 방을 거쳐서요.

첫째 아이 방에서는 사내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 방에서는 유모가 뒤척이며 깰 듯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할지가 떠올랐고,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을 향한 가엾음이 너무 크게 저를 사로잡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저는 발끝으로 복도를 빠져나가 서재로 가서, 소파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내 부모의 아들이다, 나는 평생 가정생활의 행복을 꿈꿔 온 사람이다, 나는 한 번도 그녀를 배신한 적이 없는 남자다……, 그런데 보라! 다섯 아이를 두고도, 그녀가 음악가를 끌어안고 있다, 그의 입술이 빨강다는 이유로!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암캐다, 추악한 암캐다! 평생 사랑하는 척 굴어 온 그 아이들의 방 옆에서. 그러고도 나에게 그런 편지를 써 보내다니! 그렇게 뻔뻔하게 그자의 목에 매

32 아스트라한 어린양(아страханский барашек): 러시아 남부 아스트라한 지방의 양에서 얻은 모피. 새끼 양의 곱슬곱슬한 검은 털가죽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고, 외투의 깃 장식으로 쓰였다.

달리다니!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어쩌면 내내 이래 왔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오래전부터 일꾼들과 정을 통해서, 내 자식이라 여겨지는 그 아이들을 모두 낳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일 내가 도착했다라면, 그녀가 그 머리 모양, 그 허리, 그 게으르게 우아한 움직임으로(저는 그녀의 매력적이면서 미운 그 얼굴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나를 맞았을 거고, 이 질투의 짐승이 영원히 내 가슴에 자리 잡고 그것을 찢어 댔을 거다. 유모가 무엇이라 생각할까, 예고르가. 그리고 가엾은 리조치카! 그 애는 이미 무언가 알고 있었지. 그 뻔뻔함! 그 거짓! 그리고 내가 너 무도 잘 아는 그 동물적 감각!’ 저는 자신에게 말했지요.

일어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는지 다리를 가누고 설 수가 없었지요. 그래, 나는 발작으로 죽을 거다. 그녀가 나를 죽일 거다. 그녀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다. 어디 그녀에게 한번 죽여 보라지? 아니, 그건 그녀에게 너무 이로운 일이다, 그 즐거움을 그녀에게 안겨 주지는 않겠다. 그래,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그쪽에서는 두 사람이 먹고 웃고 있고……, 그래, 그녀가 한창때 젊음이 지났는데도 그가 마다하지 않았다—어쨌든 그녀는 나쁘지 않게 생겼고, 무엇보다 적어도 그의 그 귀한 건강에는 안전할 테니까.

‘그때 왜 저년의 목을 졸라 버리지 않았던가.’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녀를 서재에서 밀어내고는 물 건들을 때려 부수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요. 그때 제가 있었던

그 상태가 생생하게 떠올랐고,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느꼈던, 그때의 때리고 부수려는 욕구를 똑같이 느꼈습니다. 행동하고 싶어졌고, 행동에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다른 생각들이 머리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위험에 처한 짐승이나 신체적 흥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상태로 들어섰습니다—정확히,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행하는 그 상태로요.”

XXVII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츠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양말 차림으로 소파 위쪽 벽, 거기에 총들과 단검들이 걸려 있는 곳으로 다가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무섭게 날카로운 다마스쿠스 곡도³³를 집어 들었지요. 칼집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칼집이 소파 뒤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제가 자신에게 ‘나중에 찾

33 다마스쿠스 곡도(кривой дамасский кинжал): 다마스쿠스 강철로 만든 굽은 단검. 칼날에 물결 모양의 무늬를 새긴 것으로 유명한 동방의 단검으로, 19세기 러시아 귀족 집안에서는 장식용 무기로 벽에 걸어 두는 일이 흔했다.

아야 한다, 안 그러면 잃어버린다'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내내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양말 차림으로 발소리를 죽여 가며 그쪽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갑자기 문을 열었지요. 두 사람 얼굴의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 표정을 기억하는 것은, 그 표정이 저에게 고통스러운 기쁨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포의 표정이었지요. 바로 그게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본 첫 1초간에 두 얼굴에 떠오른 그 절망 어린 공포의 표정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를 보거나 듣자 벌떡 일어나 옷장에 등을 대고 멈춰 섰지요.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공포의 표정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같은 공포의 표정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다른 것이 더 있었지요. 그것 하나뿐이었다면, 어쩌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에는, 적어도 그 첫 순간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사랑에 빠진 자기도취와 그와 함께 있던 행복이 깨졌다는 데에서 오는 안타까움, 불만이 더 있었지요. 마치 그녀에게는 지금 행복한 상태를 방해받지 않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했습니다. 그 두 표정은 두 사람의 얼굴에 찰나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깃든 공포가 가득한 표정은 곧 의문의 표정으로 바뀌었지요—거짓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된다면 시작해야 하고요. 안 된다면 또 다른 무엇이 시작

될 거고요. 그런데 무엇이? 그가 물음 어린 눈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을 때, 저에게 보이기에는 짜증과 안타까움의 표정이 그를 향한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시 저는 칼을 등 뒤에 감춘 채, 문가에 멈춰 서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그가 미소를 띠고, 우습기까지 한 무심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우리, 음악을 좀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도 동시에 그의 어조에 맞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일주일 전에 제가 느꼈던 바로 그 광기가 저를 사로잡았지요. 저는 다시 그 부수려는 욕구, 폭력의 욕구, 광기의 황홀을 느꼈고, 거기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을 마치지 못한 채로……, 그가 두려워하던 그 다른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말 모두를 한순간에 찢어 버린 그것이지요. 저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아래 옆구리를 찌르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전히 칼을 감춘 채로요. 처음부터 제가 골라 둔 위치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달려든 그 순간, 그가 그것을 보고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제 팔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 살려!’

저는 팔을 빼고 잠자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고, 그가 갑자기 입술까지 천처럼 새하얘졌으며, 눈이 묘하게 번득였습니다. 그러더니, 이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그가 피아노 아래로 미끄러져 나가 문으로 빠져나갔지요. 저는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제 왼팔에 무거운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였지요. 저는 떨쳐 내려 했습니다. 그녀가 더 무겁게 매달리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뜻밖의 방해, 무게, 그리고 그녀가 몸을 붙여 오는 그 역겨운 느낌이 저를 더 강하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혔으며 무서워 보일 게 분명하다고 느꼈고, 그것이 기뻐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왼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그녀의 얼굴 한가운대를 쳤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놓았지요. 저는 그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양말 차림으로 자기 아내의 정부를 쫓아가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 거라는 게 떠올랐고, 저는 우스워 보이고 싶지 않았으며, 무섭게 보이고 싶었지요. 제가 사로잡혀 있던 그 무서운 광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인상이 어느 정도 저를 이끌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로 돌아섰지요. 그녀는 긴 의자에 쓰러져, 제가 쳐 부풀어 오른 자기 눈을 손으로 감싸 쥐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본인이 간혀있는 쥐뿔이 들어 올렸을 때

의 쥐처럼, 저—저—를 향한 두려움과 미움이 있었지요. 적어도 저는 그녀에게서 저를 향한 그 두려움과 미움 말고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결과로 일어났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저를 향한 두려움과 미움이었지요. 그래도 어쨌면, 아내가 잠자코 있었더라면 저는 자제했을 거고, 제가 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말을 시작하면서, 칼을 든 제 손을 자기 손으로 붙잡으려 했지요.

‘정신 차려요! 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아무 일도……, 맹세해요!’

저는 더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내의 그 마지막 말—그 말에서 저는 반대로, 즉 모든 일이 있었다는 결론을 끌어냈지요—이 답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자신을 끌고 들어간 그 상태, 크레센도³⁴로 줄곧 차오르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야 했던 그 상태에 어울리는 답이어야 했지요. 광기에도 자기 나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추악한 년아!’

저는 외치며 왼손으로 손을 잡았지만, 빠져나갔지요. 그러자 저는 칼을 놓지 않은 채 왼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뒤로

34 크레센도(crescendo): ‘점점 세게’. 음악에서 소리가 점차 커지는 것을 가리키는 음악 용어. 이탈리아에서 유래했다.

자빠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단단한 목이었는지……, 그녀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목에서 떼어 내려고, 저는 마치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있는 힘껏 칼로 그녀의 왼쪽 옆구리, 갈비뼈 아래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광기의 발작 중에는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허튼소리고, 거짓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했고, 단 1초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요. 제가 스스로 안에서 광기의 김을 더 강하게 끓일수록, 제 안에서 자각의 빛은 더 밝게 타올랐고, 그 빛 아래서 저는 제가 한 모든 일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지요. 제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 일을 하던 그 순간에, 아니 어쩌면 약간 그 앞에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지요—마치 후회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나는 멈출 수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었던 듯 말이지요.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있다는 것, 칼이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던 그 순간에 저는, 제가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끔찍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자각은 번개처럼 번쩍이고 지나갔고, 자각 뒤에는 곧장 행동이 따라왔지요. 그리고 그 행동은 보통 아닌 선명함으로 의식되었습니다. 코르셋의 순간적 저항,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의 저항, 그러고 나서 칼이 부드러운 곳으

로 잠겨 들어가던 것을 저는 듣고 기억합니다. 그녀가 손으로 칼을 잡았다가 손이 베였지만, 잡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제 안에서 도덕적 전환이 일어난 뒤로, 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생각했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며 곰곰이 따져 보았지요. 행동에 앞선 잠깐, 정말 찰나의 잠깐, 제가 한 사람의 여자를, 무방비의 여자를, 제 아내를 죽이고 있고 죽였다는 끔찍한 자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자각의 끔찍함을 기억하기에, 저는 칼을 박은 직후에 곧장 칼을 빼냈다는 결론을 내리고, 흐릿하게나마 그 일을 떠올리기까지 합니다—제가 한 일을 되돌리고 멈추려는 마음에서요. 어떻게 될지, 되돌릴 수 있을지 기다리며, 저는 잠시 끔찍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지요.

‘유모! 이 사람이 나를 죽이네!’

소란을 들은 유모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기다리며, 믿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코르셋 아래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장 되돌릴 필요도 없다고, 내가 원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고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마음먹었지요. 그녀가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고, 유모가 ‘아이고머니!’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왔고, 그제야 저는 칼을 멀리 던지고 방을 나갔습니다.

‘동요하면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야 한다.’

아내와 유모를 쳐다보지 않은 채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외치며 일꾼을 불렀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나, 일꾼을 보내고 제 방으로 갔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저는 자문했고, 곧장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서재에 들어와서 곧장 벽으로 가서 권총을 내리고, 살펴보니 장전되어 있었지요.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파 뒤에서 칼집을 꺼내 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무엇인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가 도착하는 소리, 그리고는 또 누군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예고르가 가져온 제 바구니를 서재로 들여놓는 소리와 모습이 들리고 보였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필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나?’ 제가 말했습니다. ‘마당지기한테 경찰에 알리라고 전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지요. 저는 일어나 문을 잠그고, 담배와 성냥을 꺼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기도 전에 잠이 저를 사로잡아 쓰러뜨렸지요. 두 시간쯤 잤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 친한 사이고, 다투었다가 화해하고 있고, 무언가가 조금 거

슬리지만 우리는 친한 사이라는 그런 꿈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깰습니다. ‘경찰이군.’ 저는 깨면서 생각했지요. ‘내가 죽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찌면 아내일지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물음을 풀고 있었지요. 그래, 있었다. 코르셋의 저항과 칼이 들어가던 것이 떠올랐고, 등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래, 있었다. 그래, 이제 나도 끝내야 한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제가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일어나 권총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입니다, 전에 여러 번 자살에 가까이 갔었다는 게 기억나는데, 그날 철도 위에서조차 그것이 쉬워 보였지요. 그것이 쉬워 보였던 것은, 그것으로 그녀에게 충격을 줄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자살은커녕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저는 자문했고, 답이 없었습니다. 또 문을 두드렸지요. ‘그래, 먼저 누가 두드리는지 알아봐야 한다. 시간은 더 있으니까.’ 저는 권총을 내려놓고 신문지로 덮었습니다. 문에 다가가 빗장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자매, 착하고 미련한 과부였습니다.

‘바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말했고, 늘 준비되어 있던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뭐요?’ 저는 거칠게 물었습니다.

저로서는 처형에게 거칠 까닭이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어조를 떠올릴 수가 없었지요.

‘바샤, 그녀가 죽어 가고 있어요! 이반 표도로비치가 그랬어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의사였습니다, 아내의 의사, 조연자였지요.

‘그자가 여기 와 있나요?’ 저는 물었고, 그녀를 향해 모든 분노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어찌라는 거죠?’

‘바샤, 그녀한테 가요. 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처형이 말했지요.

‘그녀에게 가야 하나?’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에게 답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야 한다. 아마 늘 그렇게 하는 거다. 나처럼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는 반드시 그녀에게 가야 한다, 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면, 가야 한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해지면 권총 자살쯤 시간은 충분하다.’ 자살하려던 제 결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처형을 따라갔지요. ‘이제 미사여구가 나오고, 가식적인 표정이 나올 거다,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겠다.’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처형에게 말했지요.

‘부츠 없이 가는 건 어리석으니 슬리퍼라도 신게 해 줘요.’”

XXVIII

“그런데 놀라운 일이지요! 방에서 나와 익숙한 방들을 지나갈 때, 저에게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냄새, 그 추한 것의 냄새—요오드포름과 페놀³⁵—이 저를 때렸지요. 아니, 모든 게 있었구나. 복도를 지나 아이들 방을 지나갈 때, 리잔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심지어 그 자리에 다섯 아이가 다 있어서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에 다가갔고, 안쪽에서 하녀가 문을 열어 주고 나갔지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의자에 놓인 아내의 열은 회색 옷이었습니다, 피로 온통 검게 물들어 있었지요. 우리 두 사람의 침대, 정확히는 제 쪽 침대—그쪽이 다가가기 더 쉬워서겠지요—에 그녀가 무릎을 세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개만 받친 채 비스듬히, 단추가 풀린 윗옷 차림으로 누워 있었지요. 상처 부위에는 무엇인가 덮여 있었습니다. 방에는 요오드포름의 무거운 냄새가 있었지요. 가장 먼저, 그리

35 요오드포름(йодоформ, CHI₃)과 페놀(карболка, 석탄산): 19세기 후반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인 소독제. 1865년 영국 외과 의사 조지프 리스터가 페놀을 소독에 사용하면서 무균 수술의 길이 열렸고, 두 약품 모두 19세기 말 병원 특유의 냄새를 이루는 대표적인 향이었다.

고 가장 강하게 저를 때린 것은, 그녀의 부어오르고 부기로 푸르스름해진 얼굴, 코 일부와 눈 아래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붙들려 했을 때 제 팔꿈치로 친 그 일격의 결과였지요. 아름다움이라곤 전혀 없었고, 그녀에게서 무엇인가 추한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문턱에 멈춰 섰지요.

‘다가가요, 그녀에게 다가가요.’

처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 그녀가 회개하고 싶어 하는 거다.’ 저는 생각했지요. ‘용서? 그래, 아내가 죽어 가니 용서할 수 있다.’ 너그러워지려고 애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까지 다가갔지요. 아내가 한쪽이 멎든 그 눈을 힘겹게 저에게로 들었고, 힘겹게,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기어이……, 해냈군……, 죽이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신체의 고통과 압박한 죽음을 뚫고서까지, 저에게 익숙한 그 옛 차갑고 동물적인 미움이 떠올랐지요.

‘아이들은……, 그래도 너한테는……, 안 줘……, 언니가 데려갈 거야…….’

저에게 중요했던 일, 자기 잘못과 배신에 대해서, 그녀는 마치 입에 담을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듯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봐 두라고요.’ 그녀가 문 쪽을 보며 말하고는 흐느꼈지요. 문가에는 처형이 아이

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당신이 한 일이야.’

저는 아이들을 보았고, 멍이 든 그녀의 망가진 얼굴을 보았고, 처음으로 저 자신을, 제 권리를, 제 자존심을 잊었고,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한 사람의 인간을 보았지요. 저를 모욕하던 모든 것—저의 그 모든 질투가—그토록 하잘것없이 보였고, 제가 한 일이 그토록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용서해 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지요.

그녀는 더 말할 힘이 없는 듯, 눈을 감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떨리며 찌푸려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약하게 밀어냈지요.

‘이 모든 게 다 무엇 때문이었던 거야? 무엇 때문에?’

‘용서해 줘.’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 그딴 거 다 헛소리야……! 그저 죽지만 않았으면……!’ 그녀가 외치며 몸을 일으켰고, 열병처럼 번득이는 그녀의 눈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 너 기어이 해냈어……! 증오스러워! 아! 아!’ 그녀가 헛소리 속에서 무엇인가에 겁먹은 듯 소리쳤지요. ‘그래, 죽여, 죽여, 나는 안 무서워……, 다만 모두, 모두를, 그 사람도. 갔어, 갔어!’

헛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바로 그날, 정오 무렵에 아내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앞서, 여덟 시에 경찰서로 끌려갔고, 거기서 감옥으로 갔지

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며 열한 달을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저 자신과 저의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했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셋째 날이었지요. 셋째 날에 사람들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흐느낌을 누를 힘이 없어 멈추었다. 다시 힘을 모아 그가 말을 이었다.

“아내가 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가 흐느꼈지만, 곧장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내의 죽은 얼굴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한 모든 일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바로 제가 그녀를 죽였다는 것, 그녀가 살아 있고, 움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미동도 없고, 밀랍 같고, 차가운 사람이 된 것이 저로 인해 그렇게 된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다시 되돌리는 건 결코, 어디서도,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지요. 이걸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 우! 우!…….” 그가 몇 번 소리를 내고는 조용해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가 내 앞에서 잠자코 흐느끼며 떨고 있었다.

“그럼, 용서하시지요…….”

그가 나에게서 몸을 돌리고 의자에 누워 무릎담요로 몸을 덮었다. 내가 내려야 할 그 역에서—그것은 아침 여덟 시였다—나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에게 다가갔다. 자고 있었는

지, 자는 척하는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그를 손으로 건드렸다. 그가 담요를 걷어 냈고, 자고 있지 않았다는 게 보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며 살짝 웃었는데, 어찌나 가엾게 웃던지 나는 울고 싶어졌다.

“네, 용서하시지요.”

그가 자기의 이야기 전체를 끝맺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용서하시지요(простите)는 러시아어에서 ‘안녕히 가십시오’와 ‘용서해 주십시오’의 두 뜻을 모두 갖는다.

톨스토이는 후기에서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 같은 물음을 던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
**

방금 읽으신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 포즈드니쇼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 작품이 가정 안의 살인을 그렸다면, 세계문화전집 3권 『거장의 사생아들』 본편에 함께 실린 톨스토이의 또 다른 작품 『악마』는 방향을 잃은 사랑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가정 밖의 살인을 그렸습니다. 한 사내가 농민 여자를 향한 욕망을 끝내 다스리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톨스토이 본인의 삶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늘에, 톨스토이가 끝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생아 아들 티모페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프랑스의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빛과 살결을 캔버스에 옮기며 삶의 환희를 그렸습니다. 그 눈부신 화폭 뒤에도, 그가 끝내 딸로 인정하지 않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글로 자신을 파헤친 사내와 색으로 세계를 껴안은 사내. 한 사람은 거울로 자기를 응시했고, 한 사람은 창문으로 세계를 내다보았습니다. 언뜻 서로를 전혀 닮지 않은 두 거장은, 자기가 세상에 내보낸 아이를 지웠다는 하나의 과오로 묶입니다. 그리고 두 사생아는, 아버지들이 그러했듯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두 거장이 각자의 사생아를 대한 방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티모페이를 자기 영지의 하인으로 두었고,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뒤 티모페이는 적자 아들들—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의 영지에 딸린 마구간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르누아르는 혼외자인 딸 잔에게 평생 편지와 함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곧잘 전했고, 딸이 결혼할 때 혼수를 마련해 주었으며, 몇 해 뒤에는 딸 부부가 일할 수 있도록 빵집이 딸린 집도 사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며 유언으로 딸에게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사생아 아들을 철저히 외면했고,

한 사람은 사생아 딸을 끝까지 책임졌다.

톨스토이는 본인이 쓴 고결하고 위대한 작품과 달리 정작 위선자이자 나쁜 아버지의 삶을 산 악인이었고, 르누아르는 자기가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아버지이자 선인이었다.

정말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단정 내려도 되는 걸까요?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두 거장이 남긴 작품과 그 삶을 본격적으로 따라잡니다. 그 과정에서 거장들의 빛과 그늘을 응시하며, 우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할 만큼 정말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왔는가.

인간이란, 어째서 이토록 연약한가.

세계문화전집 3권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포즈드니쇼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톨스토이가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 가정 안의 살인을 그렸다면, 이 책 『거장의 사생아들』에 함께 실린 또 다른 중편 『악마』는 방향을 잃은 사랑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가정 밖의 살인을 그렸습니다. 한 사내가 농민 여자를 향한 욕망을 끝내 다스리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톨스토이 본인의 삶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그늘 아래엔, 톨스토이가 끝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 다른 형제들의 영지 내 마

구간 일꾼을 전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생아 아들 티모페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 프랑스의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빛과 살결을 캔버스에 옮기며 삶의 환희를 그렸습니다. 그 눈부신 화폭 뒤에도, 그가 끝내 딸로 인정하지 않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글로 자신을 파헤친 사내와 색으로 세계를 껴안은 사내. 한 사람은 거울로 자기를 응시했고, 한 사람은 창문으로 세계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닮지 않은 두 거장은, 자기가 세상에 내보낸 아이를 지운다는 한 가지에서 겹칩니다.

두 거장의 사생아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가, 욕망으로 사는가, 아니면 끝내 인정하지 못한 것들을 짊어진 채로 사는가.

모티브 세계문화전집 3권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두 거장의 소설과 그림, 그리고 그 삶을 나란히 펼쳐 이 물음을 건넵니다.

나는, 내 과오를 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간이란, 왜 이토록 연약한가.

모티브 세계문화전집 3권

『거장의 사생아들: 레프 톨스토이 ×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